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金 三 鎭

20세기 서구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복식 변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estern Women's Hair Style and Costume in the 20th Century

2002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 션 藝 術 學 科
扮裝藝術學專攻
鄭 任 俶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金 三 鎭

20세기 서구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복식 변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estern Women's Hair Style and Costume in the 20th Century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 션 藝 術 學 科
扮裝藝術學專攻
鄭 任 俶

鄭任俶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2年 12月

審査 委員長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국 문 초 록

복식은 그 시대를 대변하는 가치와 사고의 시각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식은 우리 몸을 둘러 싸고 있는 옷감이나 보석 또는 기타 재료에 의해 만들어진 의상은 물론이고 실용적 목적외에도 머리장식, 화장, 문신 등 장식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당시의 사회 문화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의복보다는 변화가 용이하며 자신의 다양한 개성연출이 가능한 헤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 가고 있으며, 복식 문화의 일부분에서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한 실용학문의 한 분야로 그 입지를 굳혀 가고 있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헤어 분야가 예전에는 의류관련학과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으나 1991년 전문대학과정에 미용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2002년 현재 약 70여개 대학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주축으로 전체적인 의상을 통합해 코디네이션(Coordination)하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은 숫자이지만 그동안 복식과 관련되어 연구되어 온 메이크업에 관한 논문들은 있었지만 헤어에 관한 논문은 그 중요성에 비해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대라 구분지을 수 있는 20세기의 시대적 배경인 사회 문화적 배경과 예술사조 등이 복식에서는 어떻게 수용되어 발전되었고, 헤어 분야에서는 어떻게 변천되었는 지를 고찰하여, 이것을 새로운 패션의 테두리 내에서 헤어스타일의 창조에 기초자료로,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용산업과 교육에 미력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자료인 서양복식사 및 관련서적, 예술사관련서적, 영화관련서적, 패션전문지 및 월간지, 헤어와 메이크업 관련 전문서적, 뷰티관련 사진자료 등을 통해 살펴 보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이나

사진자료 등을 첨부하였고 연구의 범위로는 1900년도부터 1999년까지의 서구 여성의 복식과 헤어로 제한하여 고찰해 보았다.

앞에서 연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헤어스타일은 복식의 일부분으로 그 당시 그 사회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반영하는 작지만 중요한 한 문화로서 의복과 같이 대인간의 인상형성 시 중요한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인 이성, 감성 등의 총체적인 면을 표현하는 미적인 수단임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단순한 미를 추구하고 표출하는 수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만족감, 정신적인 풍족함을 얻을 수 있는 형태와 색채, 질감 등 시각을 포함한 다양한 감각에 호소하는 조형예술인 것이다.

그리고, 서구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20세기 복식사에서 함께 보듯 약 10년을 단위로 약 1960년대까지는 여성적이고 곡선적인 것과 젊고 직선적인 느낌이 거의 주기적으로 약간씩 변형되어 번갈아 유행되면서 뚜렷한 헤어스타일 경향을 구분지어 볼 수 있는 반면, 70년대 이후부터는 서서히 시작된 흐름으로, 과거에 유행했던 경향을 새로운시대를 지배하는 예술사조 등의 표현기법을 도입하여 다시 여러 각도에서 재조합, 재조명하며, 다양한 대중매체의 발달로 정보화 국제화된 세계속에서 민족의 모호성, 남녀성의 모호성, 인종의 다양성 인정 등의 다원화된 양상이 90년대에는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20세기 전반기에는 대체적으로 상위계층이 유행을 선도한 반면, 20세기 후반기에 들어 서는 젊은 계층, 하위 계층이 유행을 이끌어 가는 양상으로 신분계급간의 격차 등이 많이 줄어 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헤어스타일은 신체를 바탕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의복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조화된 토탈 코디네이션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으로 대중매체의 발달과 정보화로 지구촌 시대가 된 지금, 실용학문으로서 더욱 튼튼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Ⅱ. 20세기 복식과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 신체장식의 개념 >.....4

① 인간에게 있어서 옷의 의미.....4

② 신체장식의 동기.....4

< 헤어스타일의 개념 >.....5

1. 벨 에포크 (Belle Epoque) 시대 (1900~1914년)

1) 복식.....7

2) 헤어스타일.....9

2. 제 1 차 세계대전 전·후의 시대 (1914~1930년)

1) 복식.....11

2) 헤어스타일.....12

3. 1930년대

1) 복식.....17

2) 헤어스타일.....18

4. 제 2 차 세계대전 전·후의 시대

1) 복식.....22

2) 헤어스타일.....24

5. 1950년대

1) 복식.....27

2) 헤어스타일.....29

6. 1960년대

1) 복식.....32

2) 헤어스타일.....35

7. 1970년대

1) 복식.....37

2) 헤어스타일.....40

8. 1980년대

1) 복식.....43

2) 헤어스타일.....46

9. 1990년대

1) 복식.....49

2) 헤어스타일.....52

Ⅲ. 복식과 헤어스타일의 상관관계 연구

1. 벨 에포크 (Belle Epoque) 시대 (1900~1914년).....55

2. 제 1 차 세계대전 전·후의 시대 (1914~1930년).....55

3. 1930년대.....56

4. 제 2 차 세계대전 전·후의 시대.....57

5. 1950년대.....57

6. 1960년대.....58

7. 1970년대.....59
8. 1980년대.....60
9. 1990년대.....60

Ⅳ. 결 론.....62

참 고 문 헌.....65

ABSTRACT.....71

그 림 목 차

< 그림 1 > 1900년대 'S letter실루엣.....8
< 그림 2 > 1910년대 동방풍의 의상.....8
< 그림 3 > 1900년대 퐁파두르 헤어스타일.....9
< 그림 4 > 1920년대 보이쉬 스타일의 복식.....12
< 그림 5 > 1910년대의 보브 스타일.....16
< 그림 6 > 1914년 아이렌 캐슬의 '보브 헤어스타일' 16
< 그림 7 > 1920년대 클라라 보우 헤어스타일.....16
< 그림 8 > 1920년대 마를린 디트리히 헤어스타일.....16
< 그림 9 > 클로쉐모자.....16
< 그림 10 > 1930년대 엘자 스키아파렐리의 의상.....18
< 그림 11 > 30년대 비오네의 바이어스 재단의 의상.....18
< 그림 12 > 샤넬의 Poor Look.....18
< 그림 13 > 30년대 Sleek형의 퍼머넌트 웨이브.....21
< 그림 14 > 그레타 가르보의 페이지 보이 보브 헤어스타일.....21
< 그림 15 > 30년대 터번스타일의 모자.....22.
< 그림 16 > 30년대 진 할로우의 Light Blond Hair.....22
< 그림 17 >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밀리터리 룩.....24
< 그림 18 > 1947년 디올의 New Look.....24
< 그림 19 > 로렌 바콜의 헤어스타일.....26
< 그림 20 > 베로니카 레이크의 헤어스타일.....26
< 그림 21 > 1940년대 '뉴 룩' 과 잘 조화되는 헤어스타일.....26
< 그림 22 > 베레모.....26

< 그림 23 > 40년대의 페이지 보이 보브 헤어스타일.....26
< 그림 24 > 굵은 웨이브의 짧은 형태의 보브 헤어스타일.....26
< 그림 25 > 록큰롤 패션인 영국의 테디보이스.....28
< 그림 26 > 디올의 튜립라인 실루엣.....28
< 그림 27 > 57년 Givenchy의 'Sack Look' 29
< 그림 28 > 무릎길이의 샤넬라인의 샤넬수트.....29
< 그림 29 > 50년대 Poodle Cut과 Pony Tail Style.....31
< 그림 30 > 50년대 오드리 헵번의 픽시 컷트스타일.....31
< 그림 31 > 1950년대 Bubble Hair Style.....31
< 그림 32 > Ava Gardener의 웨이브 헤어스타일.....31
< 그림 33 > Grace Kelly의 웨이브 헤어스타일.....31
< 그림 34 > 브리짓드 바르도.....31
< 그림 35 > 60년대 필박스 모자를 쓴 재키 케네디.....34
< 그림 36 > 65년 Mary Quant 'Mini Skirt' 34
< 그림 37 > 1965년 입 생 로랑의 'Mondrian Look' 34
< 그림 38 > 60년대 파코 라반의 금속소재 의상.....34
< 그림 39 > 페전트 블라우스와 스커트.....34
< 그림 40 > 60년대 Beehive 헤어스타일.....36
< 그림 41 > 재클린 케네디의 헤어 스타일.....36
< 그림 42 > 비달 사순의 기하학적 컷트의
'모즈' 스타일을 한 Twiggy.....37
< 그림 43 > 1960년대 Hippie Gathering.....37
< 그림 44 > 흑인들의 Afro 헤어 스타일.....37
< 그림 45 > 70년대 Jeans의 대중화.....39

< 그림 46 > 70년대 잔드라 로즈의 에스닉한 의상.....39
< 그림 47 > 존 트라볼타의 디스코 패션.....40
< 그림 48 > 제인 폰다의 에어로빅.....40
< 그림 49 > 비달 사순의 보브 헤어스타일.....42
< 그림 50 > 70년대 새기컷트 (Shaggy Cut).....42
< 그림 51 > 1970년대 파라 포셋의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42
< 그림 52 > 70년대 흑인들의 콘로우(Cornrows)스타일.....42
< 그림 53 > 펑크 헤어스타일.....42
< 그림 54 > 1980년대 잔드라 로즈의 펑크감각의 패션.....45
< 그림 55 > 1980년대 포스트모던 패션.....45
< 그림 56 > 80년대 앤드로지너스 룩.....46
< 그림 57 > 1980년대 장 폴 골티에의 코르셋 룩.....46
< 그림 58 > 80년대 여성의 매니쉬 룩.....46
< 그림 59 > 80년대 모호 헤어스타일.....48
< 그림 60> 스파이키 헤어스타일.....48
< 그림 61 > 스킨 헤드 스타일.....48
< 그림 62 > 다이애너비 컷트스타일.....48
< 그림 63 > French Braids.....48
< 그림 64 > 그레이스 존스의 'Flat Top' Hair Style.....49
< 그림 65 > 매니쉬 헤어스타일.....49
< 그림 66 > 90년대 샤넬을 위한 칼 라거필드의 네오 히피스타일.....51
< 그림 67> 미니멀리즘 영향의 60년대를 재현한 재키 룩.....51
< 그림 68 > 1990년대 탑모델들.....51
< 그림 69 > 90년대 미니멀리즘영향의 원피스.....51

< 그림 70 > D & G의 Inner Wear Style.....51
< 그림 71 > 90년대 힙합 헤어스타일.....53
< 그림 72 > 오리엔탈풍의 헤어와 메이크업스타일.....53
< 그림 73 > 볼륨이 없이 두상에 붙는 롱 스트레이트헤어.....54
< 그림 74 > 굵은 웨이브 헤어스타일.....54
< 그림 75 > 90년대 비달 사순의 Asymmetry Style.....54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복식은 그 시대를 대변하는 가치와 사고의 시각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식은 우리 몸을 둘러 싸고 있는 옷감이나 보석 또는 기타 재료에 의해 만들어진 의상은 물론이고 실용적 목적외에도 머리장식, 화장, 문신 등 장식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당시의 사회 문화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1)]

인류학자들은 문화를 기술하기 위해 많은 분류 체계를 사용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승인된 문화의 분류로는 물질적 산물, 사회적 산물, 그리고 정신적 산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복식은 문화의 한 요소에 불과하지만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산물이 모두 포함되는 훌륭한 총체적 산물로서 사회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시각적인 표현 중의 하나이다.[2)]

20세기인 현대에 들어오면서 복식 문화는 Hair Style, Make-Up, Accessory(모자, 신발,가방을 포함하는 그밖의 모든 장신구) 등과 함께 머리끝에서 발에 이르기까지 인체에 전반적으로 행해지는 요소들의 전체적인 통일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 그중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인체 전체부분의 부피로 볼 때 작은 부분이지만 인간의 사회생활을 얼굴과 얼굴의 관계로 비유할 정도로 안면 인지는 특히 현대의 인간 생활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다른 신체부분의 차이보다 개인간의 가장 특징적인 구분요소로 작용하는 얼굴을 포함하는 두상 부위인 것이다. 그리고 이 두상 부위인 인체에 직접 행해지는 헤어의 다양한

---

1) 김희숙, 20세기 서구여성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p.1

2) Marilyn, J.Horn & Lois, M.Gurel, Second Skin, Boston:Houghton Mittlin co., 1981, p.57

미적연출의 행위에 대한 중요성은 Total Fashion의 제 요소들의 중에 또다른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최근들어 의복보다는 변화가 용이하며 자신의 다양한 개성연출이 가능한 헤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 가고 있으며, 복식 문화의 일부분에서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한 실용학문의 한 분야로 그 입지를 굳혀 가고 있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헤어 분야가 예전에는 의류관련학과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으나 1991년 전문대학과정에 미용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2002년 현재 약 70여개 대학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주축으로 전체적인 의상을 통합해 코디네이션(Coordination)하는 교육과정이 이루어 지고 있다. 적은 숫자이지만 그동안 복식과 관련되어 연구되어온 메이크업에 관한 논문들은 있었지만 헤어에 관한 논문은 그 중요성에 비해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 현대라 구분지을 수 있는 20세기의 사회와 문화적인 배경, 예술사조 등이 복식에서는 어떻게 수용되어 발전되었고, 헤어분야에서는 어떻게 변천되었는 지를 고찰하여, 이것을 새로운 패션의 테두리 내에서 헤어 스타일의 창조에 기초자료로,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용산업과 교육에 미력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 20세기 전세계의 산업과 문화를 주로 선도해온 서구 여성의 헤어스타일의 변천을 복식의 변천과정과 관련지어 살펴 보았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헤어부분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던 서구 여성의 헤어문화를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미용(헤어와 메이크업 등의 관련

분야 포함)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예측할 수 있는 중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서술한다.

제 2 장에서는 신체장식의 개념과 헤어스타일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서구여성의 20세기에 복식과 더불어 발전되어 온 헤어스타일의 유형과 변천에 관하여 약 10년 정도의 단위로 연구해 본다..

제 3 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 본 결과를 중심으로 복식과 헤어스타일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연구해 본다.

그리고 이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자료인 서양복식사 및 관련서적, 예술사관련서적, 영화관련서적, 패션전문지 및 월간지, 헤어관련 전문서적, 뷰티관련 사진자료 등을 통해 살펴 보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이나 사진자료 등을 첨부하였다.

연구의 범위로는 1900년도부터 1999년까지의 서구 여성의 복식과 헤어스타일로 제한하였다.

Ⅱ. 20세기의 복식과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20세기의 복식과 헤어스타일의 변천에 관해 살펴 보기에 앞서서, 신체장식과 헤어스타일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체장식의 개념 〉

① 인간에게 있어서 옷의 의미

인간이 의복을 입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로는 첫째,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나무도 자라지 않는 극한지역에 사는 에스키모인들과 열대, 아열대지역의 사막지대 등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의복은 신체보호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둘째로는 장식성 즉, 자기를 타인에게 돋보이고 아름답게 장식하려는 동기로 이는 인간의 가장 큰 필연적 욕구중의 하나인 것이다.

② 신체장식의 동기

인간에게는 자신의 얼굴과 몸매를 가꾸는 본능적 욕구가 있다. 이와같이 인간의 신체장식의 본능적 욕구는 인류사적, 인간학적으로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기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변신하고싶은 욕망으로 인간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고 보다나은 방향으로 변신하고 싶어한다. 보다 훌륭하고 고귀하게, 보다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한다. 이러한 것에서 옷감이 없는

미개사회에서는 흙이나 재, 돌가루 등에 기름을 섞은 것을 신체장식과 문신, 상흔 등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켰던 것이다.

둘째,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욕망으로, 인간이란 불안에 대하여 고민하는 약한 존재라는 점과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체장식이 필요했다는 점으로 신체장식은 권위나 지위나 부의 표준, 상징 또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중요하게 여겨져 이들에게 촉구되어고도로 정교하게 발달하였다. 그러나 그 근원에는 인류가 가진 존재의 불안함이 있어, 장식하는 것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자기외관을 가꾸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셋째, 에로스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문화로 성적매력을 과시하는 몸매가꾸기가 있다.[3] 인류에게도 그 옛날 크로마뇽시대에는 다른 포유류와 같이 발정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것이 인류진화와 함께 그기간이 확대되고, 그 다음으로는 언제라도 가능한 것이 되어 버렸다 .이것은 인간과 같은 포유류인 박쥐의 일을 상기시킨다. 박쥐는 본래 하늘을 날지 못하는 포유류인데 피부를 날개로 변화시켜 날고 있다. 이것은 발정기의 왜곡에 대한 인간의 진화 때문인 것이다.

〈 헤어스타일의 개념 〉

헤어스타일(Hairstyle)이란 머리형태, 머리풍으로 헤어두(Hairdo)라고도 하며, 프랑스어로는 꾸아퓌르(Coiffure)에 해당한다. 머리형은 시대・민족

3) 백영자, 유효순 공저, 「서양복식문화사」, 경춘사, 1991, pp.10-14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모두 의복과 관련되어 발전하였고, 어느 시기에는 의복과 더불어 패션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머리에 쓰는 물건과 일체화된 시기도 있었고, 종래부터 일관되게 계급의 차이나 성병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신체를 장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얼굴의 형태나 유행에 따라 여러 가지 스타일로 변화되었다.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헤어스타일이 있었으며, 여성에게는 예로부터 동서고금 상하귀천을 막론하고 장식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장식방법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였다.[4)]

모발을 가다듬어 만지는 것은 신체보호 기능 이외에 심미적이며 주술적인 기능을 지닌 인간의 종합적 표현수단이다. 의복과 함께 헤어스타일만 보아도 그 사람의 지위, 성별, 신분, 성격까지도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헤어스타일은 그 시대의 사회적인 현상을나타내기도 하는 것으로 계급이 있는 사회에서는 노예나 하녀들이 윗사람의 모발을 가꾸어 주었고, 중세시대에는 에로틱한 분위기를 감추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머리장식 밑으로 모발을 숨기기도 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역사적으로 볼 때, 때로는 의복과 조화로운 형태로, 때로는 대립적인 양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변화·발전되어왔고, 얼굴형태나 분위기를 포함하여 의복, 메이크업과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때 진정으로 토탈 패션(Total Fashion)의 일부분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

4) 이청자, 히피패션에 나타난 히피 헤어스타일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19

헤어스타일은 복식, 메이크업과 마찬가지로 시대와 함께 변화하므로 그 시대의 유행양상과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00년대부터 1999년까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큰 사건들을 기준으로 나누어 헤어스타일을 복식과 더불어 그 변천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벨 에포크 (Belle Epoque) 시대 (1900~1914년)

1) 복식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과학적·경제적인 발전을 배경으로 제국주의가 가장 발전된 상태의 이 시기를 좋은 시절, 즉, 벨 에뽀끄(Belle Epoque)라 불리는 평화시대로 1900년대부터 1909년까지는 19세기의 연장이었다. 이 시기의 후반까지는 여성들은 19세기의 흔적인 '코르셋'을 착용한 S자형 실루엣의 화려하고 과장된 여성미를 선호했다. 가슴은 지나치게 앞으로 나와 마치 비둘기 가슴을 연상시켰고 허리는 코르셋으로 조여 개미허리를 연상시켰다. 조여진 허리와는 달리 힙은 둥글게 강조되었고 스커트는 발목을 덮을 정도로 길게 아래로 늘어뜨렸다.(그림1) 그러다 보니 신발이나 스타킹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다만 장갑은 필수품으로 여름에도 꼭 착용을 하고 다녔다.

1907년 '현대 패션의 창시자'로 불리는 폴 푸아레(Poul Poiret)에 의해 엠파이어 실루엣(Empire Silhouette : 가슴 바로 밑에 절개선이 들어간 높은 허리선의 실루엣)이 발표되면서 여성들은 코르셋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독립심 강한 신여성들이 진보적인 사고에 맞게 실용적이고 별로 화려하지 않은 합리적인 스타일을 지향하게 되었다.[5]

---

5) Harper's BAZAAR, 1999년 1월호, p.53

1909년 러시아 발레단의 파리 공연은 복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폴 푸아레(Paul Poiret)는 Red, Violet, Cobalt, Orange 등의 밝고 정열적이고 강렬한 색조를 그의 의상에 도입하였고, 1910년경에 그가 발표한 혁신적인 동방풍의 스커트의 밑단인 발목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져 심한 경우 1야드도 안될 정도로 좁아 보행하기도 힘든 '호블 스커트(Hobble Skirt)'와 1912년경 중동의 영향을 받은 발목에 개더를 넣어 졸라맨 헐렁한 바지인 '하렘팬츠(Harem Pants)'는 서구 스타일의 상의와 착용해 동서양의 조화를 이루었으며, 극동의 일본문화에서 많은 영감을 얻은 '기모노 스타일(Kimono Style)'의 의복을 많이 디자인하였다.(그림2)

이와같이 동방풍의 모티브를 주로 한 여성복과 병행하여 나타난 또 다른 경향은 장식적인 디테일(Detail)이 점차 사라지고, 가슴과 힙은 자연스러워지고 머리가 짧아지기 시작하였다. 버팀대가 없어지고 길이가 길어지고 코르셋의 형태변화와 함께 신축성이 많은 천을 사용한 브래지어(Brassiere)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림 1> 1900년대 'S letter실루엣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그림 2> 1910년대 동방풍의 의상 「한국과 서양의 화장문화사」

2) 헤어스타일

20세기 초인 1900년대 초에는 '퐁파두르(Pompadour)'라는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이 스타일은 원래 프랑스의 국왕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Marquise de Pompadour(1721~1764)가 유행시킨 머리형태로 그녀의 이름을 따서 퐁파두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6] 퐁파두르 스타일이 처음 나타난 당시의 머리형태는 가리마는 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두상에 딱 붙여서 머리를 빗어 올려 머리 뒤에서 정리하고 양쪽 귀밑으로 애교머리를 살짝 내어놓는 모양으로 나타났다.[7] 그러나 20세기초 아르 누보 시대에 유행했던 퐁파두르 스타일은 18세기에 나타난 것과는 다르게 느슨한 모양이 인기가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났다.(그림3)

<그림3> 1900년대 퐁파두르 헤어스타일
출처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즉, 앞의 머리는 이마 위로 빗어서 올리고 길은 뒤의 머리는 뒤에서 높이 올려 고정시켰는데 가끔은 rat이나 switch와 같은 머리 다리나 인패드를 머리카락 속으로 집어넣어 부풀리는 효과를 주었으며, 부풀리는 효과

6) Charlotte Calasi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 Fairchild Publication, p.562
7)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 경춘사, 1995, p.642

를 낼 때는 머릿결을 반대 방향으로 빗질을 하며 부풀림을 주는 백콤(backcomb) 효과를 주었으며 뒷머리는 머리카락을 뒷 부분에서 묶어 틀어올린 것, 즉 '쪽'모양인 시뇽(chignon)으로 했다. 앞머리는 앞이마 너머로 넘겨지거나 부풀려지고, 웨이브를 주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였고 패드나 시뇽은 이마의 가까운 곳이나 머리의 꼭대기 혹은 목의 중간 높이 또는 낮은 곳에 다양하게 부착되었고 머리모양을 유지시키는데 금박이나 보석으로 장식되어진 거북의 껍질이나 호박으로 만들 빗이 사용되었다.

이 퐁파두르 헤어스타일은 아르 누보(Art Nouveau) 시대 양식의 풍요로움과 부드러운 곡선미가 머리형태에도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모양이 아직은 곱게 장식해서 꾸며진 스타일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장식미술이나 복식 등의 선에서 느낄 수 있는 부드럽고 완만한 전체적인 실루엣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이 머리형태는 20세기 이전의 모양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단순해져 가는 첫 단계의 모양이라 할 수 있다.

미용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1880년대에 매리 콥(Mary Cob)이 파리에 처음으로 미장원을 열었고 이때의 미장원은 머리를 자르고 다듬는 헤어컷과 가발을 만드는 것이 주업이었다.

1906년 미국정부는 순수식품의약품 법률을 제정했다. 같은 해에 Charles Nestle이 Hot Permanent 기계를 발명, 헤어스타일에 대해 일대의 혁명을 일으켰고,[8] 1907년에는 Eugene Schueller가 인공합성 머리염색약을 발명, Aureole이라 명명하였으나 후에 Loreal로 바뀌었고, 머리 색깔에 있어 블론드의 모발색 유행은 지나가고 헤나(Henna) 염료를 사용한 적갈

8) 김희숙, 20세기 서구여성 헤어 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p.28

색이 유행을 했다. 헤나는 북아프리카 근동 지방의 습지에 재생하는 관목인데 그 잎을 건조시켜 분말로 해서 모발에 염료로 사용하였다.[9]

2. 제 1 차 세계대전 전 · 후의 시대 (1914~1930년)

1) 복식

제1차 세계대전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일부는 기능적인 옷을 즐기면서 이러한 시대 감각을 여성들이 여자다움보다는 가슴을 납작하게 하고 허리 곡선을 완화시킨 무릎길이의 단순한 디자인의 스커트로 구성되어 있는 튜블러 스타일(Tubulor Style)의 보이쉬 스타일(Boyish Style)을 창출하도록 했으며, 이 스타일은 1920년대 말까지 유행했다.(그림4) 이것은 가슴, 허리, 힙 모두를 억제한 일자형의 슬림(Slim)한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성숙한 여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말괄량이 아가씨 스타일(Flapper Style)이라고도 한다. 1919년 '바우하우스(Bauhaus)'는 디자인 중심의 기능주의운동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양상은 샤넬의 의상에서 확실히 나타났으며, 즉, 소재 측면에서 의복의 새로운 형태를 찾았는데, 신축성과 유연성을 지닌 '저지(Jersey)'를 사용하여 움직임이 있는 기능성을 강조한 '슈미즈 드레스(Chemise Dress)'을 디자인하였다.[10]

그러나 1920년대 후반부에는 1925년에 가장 짧아졌던 스커트의 길이가 차츰 길어지면서 여성적인 분위기의 가르손느 스타일(Garçonne Style)로

---

9) 김희숙,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화장문화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가정학 박사 학위논문, 1999, p.50

10) 이선재, 「의상학의 이해」, 학문사, 1998 p.141

변해 갔다.[11] 이러한 스타일로 패션업계를 이끌어 나간 사람은 샤넬(Gabrielle Chanel)이었으며 장식성을 배제하고 기능성을 중시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것이었고, 푸아레가 상류층의 부르주아 여성을 대상으로 성숙한 여인의 모드를 창조한데 반해, Chanel은 중간층의 직업여성을 위한 활동적이고 젊어 보이는 스타일의 드레스를 디자인하였다. 즉 그녀는 그 시대의 경제발전과 시대상을 복식에 반영한 디자이너이자 대중을 위한 최초의 디자이너였다.[12]

<그림 4> 20년대 보이쉬 스타일의 복식
출처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2) 헤어스타일

1910년대는 제1차 세계대전(1914~1919)이라는 엄청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상하계층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많은 여성들은 전쟁으로 출전한 남성들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군수품 공장이나 기타 여러 분야의 남성들이 점유하던 분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머리형태는 권위나

11)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수문사, 2000, p.368
12) 전선정외 3人, 앞의 책, p.159

여성으로서의 성적매력의 상징으로 장식되어진 형태에서 점차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손질이 간편하고 용이한 상태로 발전하게 되었다.[13]

이 시기에 유행하게 된 머리형태는 보브 스타일(Bob Style)[14]로 머리모양에 층인 단차가 없이 뒷머리는 짧게 직선으로 블런트 커트(Blunt Cut)[15]를 하고 앞머리인 프린지(Fringe)는 일직선상으로 짧게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형태는 본래 네델란드인들의 전통적인 머리형태로 서양에서는 주로 어린 소년들이 하고 다녔다.[16](그림5)

보브 스타일(Bob Style)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보브'란 '자른다(Cut)'의 다른 명칭으로서 오늘날의 단발(Dutch Bob)과 짧은 쇼트커트(Shingle Bob)을 총칭하는 것이였다.

보브 스타일이 처음으로 출현하게 된 것은 20세기 초반인 1910년대로 과학과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게 되어 기능적인 면이 중요시 여겨졌던 시대이므로 과다한 장식과 허식을 벗어나 예술사조나 패션분야에서도 단순함과 기능적인 면을 추구하게 되었으므로 머리형태도 짧은 단발머리인 보브스타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스타일 여성들에게 대중화되도록 한 계기는 1914년 탱고댄서로 유명했던 아이렌 캐슬(Irene Castle)이 보브스타일을 하고 춤을 추었고(그림6), 유명한 현대 발레리나였던 이사도라 던컨(Isadora Duncan)이 보브스타일을 하고 공연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되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1차 세계대전 중 남자들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여성들의 사회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남녀평등 사상이 생기면서 짧고 간편한 스타일로

---

13) 김희숙, 앞의 석사논문, 1994. p.125
14) Bob Style : 단발머리라는 뜻
15) Blunt Cut : 층이없이 뭉툭하게 자르는 컷트
16) Turner Wilcox, The Dictionary of Costume, London : B.T. Batsford Ltd, 1979, p.31

바뀌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

즉, 보브스타일은 20세기 초에 영향을 주었던 단순함과 기능성을 추구했던 기능주의와 댄스의 붐, 그리고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기회 증가로 긴 머리에서 느끼던 아름다움의 기준이 서서히 바뀌면서 짧고 간단하며 간편한 머리형태를 하는 계기가 되었고,컷트 방법 및 볼륨을 넣는 방법에 따라서 10대에서 50대까지도 응용할 수 있는 응용범위가 매우 넓은 헤어스타일이다. 또한 기존의 보브스타일에 다양한 웨이브를 응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그림7), (그림8),

1920년대에 획기적으로 널리 유행하던 소년같은 여성이미지의 가르손느 스타일(Garçonne Styel)이 패션계에 유행하면서, 1910년대에 짧은 단발머리인 보브스타일을 하기 시작한 여성들은 20년대 중반에 들어와 남성의 머리형태와 똑같은 짧은 머리 형태인 쇼트 커트(Short Cut)를 하게 되었다. 즉 쇼트 커트는 보브의 유행에서부터 생긴 것으로 처음에는 쉥글(Shingle)이란 명칭으로 불렀는데, 'Shingle'이란 남성들이 전통적으로 해온 머리형태와 같이 뒷머리를 짧게 올려 쳐 주는 것인 테이퍼링(Tapering)으로 머리에 층을 주는 한가지 방법으로 머리 윗부분은 두껍고 아래쪽은 얇게 층을 내어 깎는 것이었다.[17]

그 후로 Shingle은 영국에서는 영국의 이튼 칼리지(Eton College) 남학생들이 하고 다니던 머리형태와 똑같았기 때문에 이튼 크롭(Eton Crop)[18]으로 미국에서는 남자같이 짧은 머리란 뜻에서 보이쉬 보브(Boyish Bob)라 불렀다.

이 스타일은 19세기 초엽 이미 남성들간에 유행하였고, 이 스타일이 유

17)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 Fairchild Publication, 1985, p.266
18) 앞의책, p.261

행하면서 머리를 매거나 손질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습관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짧은 머리에 낮에는 심플하고 착 달라붙는 '클로쉐(Cloche)(그림9)'라는 모자를 썼고 밤에는 머리에 장식을 하거나 드레시하게 연출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가발을 사용하고 남성들과는 다른 스타일을 연출했으며[19] 평상시에는 짧은 머리형태를 환영했다. 그리고 Shingle의 짧은 머리형태이지만 뒷머리에 올려깎여진 부분은 밑부분을 V자형으로 만들어서 여성다운 청결한 아름다움을 연출했다.

이 시기에 마샬 웨이브(Marcel Wave)[20]의 보급은 Bob Style의 유행을 가속시키며 다양화시켰다.

이 짧은 머리에 곱슬거리게 컬을 해서 5㎝ 미만의 작은 '보비핀(Bobbi Pin)'이라하여 끝이 열려있는 지금의 실핀형태의 핀이 발명되는 계기가 되었고 별다른 핀이나 장식이 작아지거나 필요치 않게 되었으며,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널리 유행한 모자는 '클로쉐'로 이것은 주로 검정색상의 '펠트(Felt)'라는 압축해 놓은 모직 직물로 만들어 겨울이나 여름의 계절을 불문하고 드레시한 복장이나 스포티한 복장에도 또한 이브닝복장에도 사용하였다.

---

19) Michal and Ariane Batterberry, 「Fashion」, London Columbus Books, 1982, p.244

20) Marcel Wave : 마샬 웨이브란 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두발의 분자구조에 변화를 주어 웨이브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프랑스 Francois Marcel Grateau가 창안하여 1875년에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롱'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5> 1910년대의 보브 스타일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그림 6> 1914년 아이렌 캐슬
'보브 헤어스타일'
출처 「20세기 패션」

<그림 7> 1920년대 클라라 보우
헤어스타일
http://costumegallery.com/

<그림 8> 1920년대 마를린 디트리히
헤어스타일
http://costumegallery.com/

<그림 9> 클로쉐모자
출처 「한국과 서양의 화장문화사」

3. 1930년대

1) 복식

1929년 10월에 있었던 뉴욕 '월 스트리트' 의 주가 대폭락과 함께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시작되어 생산침체, 은행파산, 상거래 등의 불경기도 큰타격을 받았으며 여러나라에는 해고된 실업자가 넘쳐났으며, 사람들은 실업과 기아로 고통을 받게 되었으며 사회불안과 정치적 혼란을 가져왔다.

이러한 세계적인 대공황에도 불구하고 패션은 1920년대 이어 1930년대에도 계속 발전했다. 경제 불황은 의복에도 영향을 미쳐서, 더이상 경쾌한 말괄량이 모습의 20년대 '플래퍼 룩(Flapper Look)' 등의 유행보다는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되어 다시금 비활동적이고 우아하고 늘씬한 성숙한 여성스러움이 중시되었다. 따라서 '보이쉬 스타일(Boyish Style)'이 사라지게 되고 30년대 초반 유행하였던 우아한 유선형 스타일들을 1934년 이탈리아의 엘자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에 의해 다소 각진 어깨와 다소남성적인 정돈된 테일러드 수트 스타일로 바뀌게 된다. 어깨패드를 사용하여 어깨선이 매우 강조되었고 날씬한 힙을 갖도록 새로운 실루엣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엘자 스키아파렐리는 적극적으로 달리(Salvador Dail)와 베라르(Christian Berard)등의 초현실주의 예술가들과 교분을 나누며 공동작업을 도모하였으며, 의복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기법을 신체 일부로 이동이나감추어진 부분들의 표출 등의 반이성적으로 표현하였다.(그림10)

1930년대 패션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마들렌 비오네(Madeleine Vionnet)로 '바이어스(Bias)' 재단을 개발해 솔기나 앞뒤 트임없이 머리부터 의복을 입게 하였고, 특히 다양한 드레이프와 등이 둥글고 깊게 팬

홀터(Halter)네크라인, 카울(Cawl)네크라인 등으로 몸에 길게 늘어져 여체의 움직임을 강조한 혁신적인 드레스를 디자인하였다.(그림11)

한편 경제 대공황으로 그때까지 환영받지 못하던 직물인 '저지(Jersey)'로 만든 작은 은색 드레스와 오늘날 T-Shirts가 된 '줄무늬 풀오버' 등의 '푸어룩(Poor Look)'이라는 이름으로 샤넬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그녀는 진짜보석도 '모조품'으로 대치시켰다.[21](그림12)

<그림 10> 1930년대 엘자 스키아파렐리의 의상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그림 11> 30년대 비오네의 바이어스 재단의 의상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그림 12> 샤넬의 Poor Look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2) 헤어스타일

1930년대가 되어 2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경제공황이 지속되면서 의상은 20년대에 비해 로맨틱하고 성숙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로 바뀌면서 말괄

21) Harper's BAZAAR, 1999년 4월호 p.57

량이같은 보이쉬 스타일이 자취를 감추고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 스타일이 유행하게 되었다.(그림13)

퍼머넌트웨이브 스타일이란 자연 상태의 두발에 대해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모발의 구조나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되는 웨이브모양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의 퍼머넌트 웨이브를 살펴보면 고대 이집트의 젖은 진흙으로 모발을 셋팅하고 태양아래서 건조하고 진흙을 제거하는 방법과 1870년 프랑스 마셀 그라또(Marcel Grateau)에 의해 집게와 같은 Iron의 열에 의해 일시적으로 모발의 구조를 변화시켜 웨이브를 형성하나 머리를 감으면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일시적인 방법이 있어 사용되어 왔는데, 1906년 런던의 미용사 찰스 네슬(Charles Nestle)은 '물과 샴푸와 모든 환경의 영향에서 견딜 수 있는 처치'라며 '퍼머넌트 웨이브'[22]라 했으며 이것은 알칼리와 열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히트웨이브(Heat Wave)' 즉 열퍼머로 오늘날 현재 셋팅 펌(Setting Perm) 이라는 열퍼머의 원조격인 샘이다. 시술 방법은 클립에 모발을 말고 그 위에 붕사와 물을 페이스트형태로 개서 발라 그것을 은박지 등으로 싸고 일일이 가열하는 것이었으나 시술시간이 1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많은 비용과 열을 이용해 위험했으므로 많이 사용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36년 영국의 스피크만(J.B. Speakman) 교수에 의해 모발의 케라틴 화학구조를 이용해 열을 사용치 않고 시스틴 결합을 끊을 수 있는 연구가 완성되어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Cold Permanent Wave)의 원리가 전해지고 시술시간도 2~3시간으로 열로 인한 위험 없이 간단한 약품처리

22) Michael & Ariane Batterberry, Fashion the Mirror of History, New York : Greenwich House, 1977, p.187

로 가능했기에 경제불황으로 인해 반영구적인 부드러운 웨이브가 가능해지면서 여성들에게 대중화되고 오늘날까지도 널리 애용되고 있다.[23]

20년대의 Short Bob은 3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르마를 옆이나 중앙에 하고 커다란 웨이브를 만들어서 귀를 감싸고 귀밑에서 한 개의 큰 롤(Roll)을 만들거나 작은 Curl(구불거림)을 합쳐서 시뇽(Chignon)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32년경부터 30년대 중반까지는 영화배우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의 스타일이 유행했는데 이것은 옆가르마를 하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로 완만한 웨이브를 귀 안쪽으로 굽어지게 한 모양으로 '페이지 보이 보브(Page Boy Bob)(그림14)'스타일이라 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다. 머리카락은 더 길어졌고 젊은 여성들은 앞과 옆에 핀을 꽂고, 머리를 뒤로 길게 풀거나 페이지 보이 보브와 같은 미국 헐리우드스타들의 스타일을 좋아했고 이런 스타일은 '롱 보브(Long Bob)'라 불리며 보편적인 스타일이 되어 갔고 현대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욱 세련된 머리스타일은 패션잡지에서 '빅토리아풍' 또는 '에드워드풍'으로 묘사된 우아하게 들어올려진 모양이었고 빅토리아와 에드워드 시대로부터 영향을 받은 스타일이었다.[24]

모자는 작고 관이 얕으며 창이 한쪽만 뒤집어진 것을 눈을 가리도록 쓰거나, 비스듬히 쓰거나 했다. 30년대 초에는 베레모를 많이 썼는데 비스듬히 쓰고 앞이마에 짧은 베일을 늘어뜨렸고 점차로 터번(그림15)이 유행하게 되었으며, 이 당시 멋쟁이 여성은 꼭 모자를 착용하였으며 1934년 허리우드 스타 진 할로우(Jean Harlow)의 영향으로 밝은 Blond 헤어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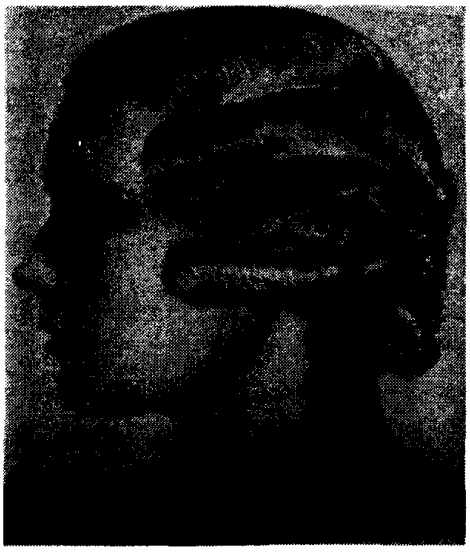
---

23) Cold Permanent Wave : 모발을 가열시키지 않고 약제에 의한 환원, 산화반응을 이용하여 모발의 구조를 바꾸어 웨이브를 만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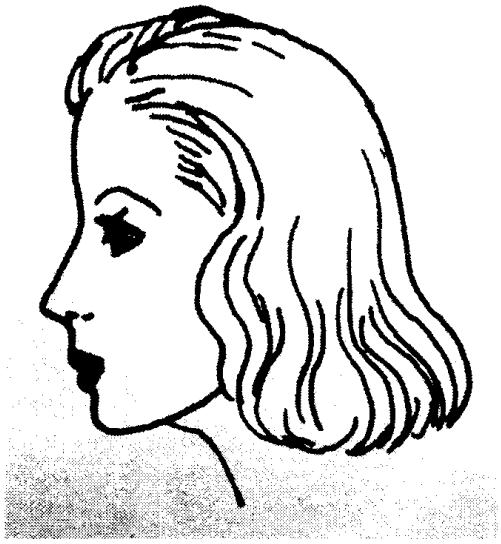
24) David Bond, 정현숙 역, 「20세기 패션」, 경춘사, p.114

이 유행하여 많은 여성들이 옅은 색상으로의 탈색(Bleach)[25]된 머리를 선호하였다.(그림16)

1930년대의 퍼머넌트웨이브는 대공황이라는 최악의 불경기와 실업과 인플레가 늘어나고 이전까지 보이던 여성운동의 퇴조라는 시기적인 상황이 맞물리고, 고전으로 돌아가려는 복고풍과 새로운 스타일의 웨이브의 연구가 완성되면서 여성스러움이 강조되고 아름다움과 간소함, 개성을 나타내줄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13> 30년대 Sleek형의
퍼머넌트 웨이브
http://costumegallery.com/



<그림 14> 그레타 가르보의
'페이지 보이 보브' 헤어스타일
출처 「Face is a Canvas」

25) Bleach : 알칼리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1제와 산화제인 과산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2제를 혼합하여 생기는 발생기의 산소가 모발의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여 탈색시키는 작용.

<그림 15> 30년대 터번스타일의 모자
출처 「한국과 서양의 화장문화사」

<그림 16> 30년대 진 할로우의
Light Blond Hair
출처 「Face is a Canvas」

4. 제 2 차 세계대전 전·후의 시대

1) 복식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2차 대전은 1차 대전에 비해 더욱 큰 세계전쟁이었고 더 가공할 무기가 사용되고 심한 문명사회의 파괴로 이어졌다.

2차 대전의 발발로 물자가 귀해지고 가격이 폭등하여 경제는 침체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모든 것을 절약 재생하는 사회풍조로 패션계도 거의 실용적인 옷으로 명맥을 이어갔으며 물자부족 및 사회적 제반여건에 의해 30년대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짧은 스커트에 어깨에는 '패드(Pad)'를 넣어 모난 어깨가 강조되고 허리는 정상 위치였으며 활동하기 편한 박스(Box) 형의 테일러드 수트인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그림17)이 실용적인 기능복으로 2차 대전 직후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었고 남성적인 테일러드 수트는 여성으로 완전히 정착되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패션

에 대한 규제가 무척 심해져 의류판매 가격과 스타일의 숫자를 제한하였고 국민들에게는 쿠폰을 발행하여 1년에 1인당 40장씩 배급했는데 수트 한 벌을 사려면 쿠폰 80장이 필요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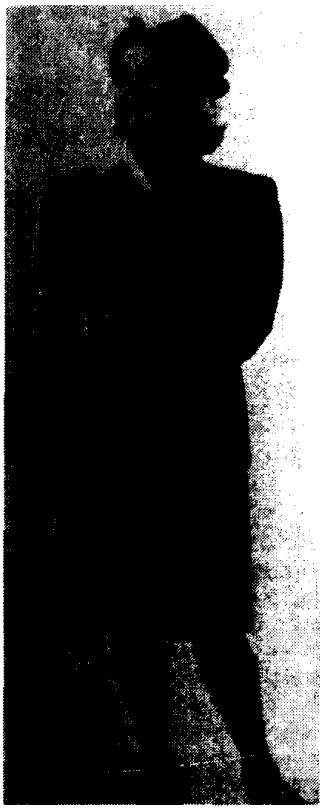
1947년 봄 파리 컬렉션에 디올(Christian Dior)이 발표한 그 유명한 새로운 충격적인 실루엣인 '뉴룩(New Look)'은 둥글게 처진 어깨에 둥글고 풍만한 가슴, 가는 허리선과 길고 넓은 화려하게 펼쳐지는 플레어 스커트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중세 이후 우아함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프랑스 엘레강스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그림18) 당시 <하퍼스 바자> 편집장인 카멜 스노우(Carmel Snow)는 칼럼을 통해 "존경하는 크리스찬, 당신의 옷은 아주 새로운 룩이었습니다.(My dear Christian, your clothes have such a new look.)"라며 새로운 컬렉션에 보낸 찬사가 '뉴룩'이라는 신조어가 고유명사로 자리하게됐다. 한편 디올은 1947년 '뉴룩' 이후 57년 사망할 때까지 10년동안 H라인(1954), Y라인(1955), A라인(1956)을 계속 내놓아 은근히 이 시기를 '라인의 시대' 라고 부르기도 한다.[26]

특히 이 시기 미국에서 대부분의 히트 아이템은 클레어 맥카델(Clair McCardell)의 몫으로 '아메리칸 스포츠 웨어'를 처음 선보였다.

1946년 파리 디자이너 루이 리어드(Louis Reard)는 남태평양 비키니 산호섬의 원자폭탄 실험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이 만든 투피스 수영복에 '비키니(Bikini)'라는 명칭을 사용해 수영복의 고유명사가 되었다.

---

26) Harper's BAZAAR, 1999년 5월호, p.62



<그림 17>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밀리터리 룩
「서양복식」

<그림 18> 1947년 디올의
New Look
「Fifty Years of Fashion」

2) 헤어스타일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의 시기에는, 처음에는 30년대의 유행을 그대로 따랐으나 긴 전쟁기간 중에 머리스타일을 연출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제약이 생기게 되어 머리형태는 좀더 간소화되었으며 모자 종류는 장식용이 아닌 머리 보호용으로 착용하게 되었다. 즉, 전쟁기간 중에 공장, 농장, 사무실 등에서 남자들을 대신하여 일하는 여성들은 작업시 간편하고 기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천이나 터번으로 머리를 묶었고 머리형태도 스타일보다는 실용적이고 위생적인 면에 치중했고, 44년부터는 모자보다는 스카프를 턱에 매어 쓰거나 머리 꼭대기에 매어 쓰는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그나마 모자중에는 베레모를 가장 많이 착용하였고, 챙이 넓은 모자는 이마 위에 비스듬히 써서 한쪽 눈을 가리고 다녔다.

여배우 Hedy Lamarr, Lana Turner, Lauren Bacall(그림19), Rita Hayworth, Veronica Lake(그림20), 등은 전쟁 기간중의 이상적인 미인상이었으며, 길고 풍성하게 웨이브진 헤어스타일로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Paris로부터 Liberation이라는 명칭의 꽃, 깃털, 리본으로 높이 장식된 모자가 발표되었다.[27]

전쟁이 끝난 후 47년경 프랑스 디자이너인 디오르의 획기적인 뉴룩(New Look)은 여성의 곡선미를 살리도록 머리에서 발끝까지 패션을 바꾸어 놓았고 두상은 되도록 작게 표현될 수 있도록 헤어의 부피를 작게 표현한 것이 New Look과 잘 조화를 이루었으며(그림21), 헤어스타일은 주로 두상에 딱 달라붙은 시뇽형태이고 모자는 베레모(그림22)나 필박스(Pill Box)가 유행하였다. 이때 유행한 머리 형태도 퐁파두르 형태의 일종인데 1900년대에 유행한 것과는 달리 긴 머리가 아닌 어깨 길이의 머리로 앞머리는 백콤(머릿결 방향과 거꾸로 빗질하여 부풀리기)을 넣어 위로 빗고, 핀을 꽂았으며 안에는 패딩을 하지 않았으며 머리를 올리지 않는 경우에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등의 젊은 여성들은 '페이지 보이 보브' 스타일을 많이 하였는데.[28] 머리길이는 어깨에 닿고 등뒤쪽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릴 수 있도록 테이퍼링(모발의 숱을 가볍게 치는 것)하였다.(그림23) 그리고 좀 더 나이든 여자들은 굵은 웨이브의 단순한 보브스타일의 형태를 하였다.(그림24)

---

27) Annalee Gold, 「75 Years of Fashion」, New York : Fairchild Publications, 1975, p.30

28) 전선정외 3인, 「미용미학과 미용문학사」, 청구문화사, 2001, p.175

<그림 19> 로렌 바콜의
헤어스타일
http://costumegallery.com/

<그림 20> 베로니카 레이크의
헤어스타일
http://costumegallery.com/

<그림 21> 1940년대 '뉴 룩' 과
잘 조화되는 헤어스타일
출처 「Face is a Canvas」

<그림 22> 베레모
「20세기의 패션」

<그림 23> 40년대의 페이지 보이
보브 헤어스타일
「20세기 패션」

<그림 24> 굵은 웨이브의 짧은
형태의 보브 헤어스타일
「20세기 패션」

5. 1950년대

1) 복식

전쟁의 산물인 첨단 공장시설과 전쟁에서 돌아온 남성들의 노동력은 1950년대를 번영과 왕성한 소비, 대량생산의 시대로 변모시켰고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시작된 베이비붐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50년대의 사회는 남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반면 여성들은 그들의 능력보다는 가정적이고 가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고 일보다는 결혼이 중요하며 또한 목표가 되었고 겉치장, 외모, 섹스어필이 주관심사가 되었다.[29]

1950년대의 패션은 2개의 커다란 조류로, 그 하나는 디오르, 발렌시아가, 지방시 등 파리 오트 쿠튀르(Haute Couture)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한 룩(Look), 라인(Line)을 추구한 하이패션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틴에이저(Teen-Ager) 패션인 로큰롤(Rock'n Roll) 패션이었고, 영국에서는 테디 보이스(Teddy Boys) 스타일이라 하여 유행하였다.(그림25)

지금까지의 패션은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하이패션이었지만 이 시기에 청소년 하위문화가 등장하여 새로운 마켓을 형성하게 되었다.[30]

'뉴룩'으로 유명해진 디오르는 50년대 하이패션을 이끌어간 주인공으로 모든 컬렉션의 첫머리를 장식하며 강력한 패션 하우스의 독재자로 군림했다. 50년대는 '디오르의 알파벳라인 시대'라 불리우며 '뉴룩'에 이어 H라인, A라인, Y라인, Tulip라인 등이 그것이었다.(그림26)

1957년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Crisobal Balenciaga)와 후버트 드 지방시(Hubert de Givenchy)는 '뉴룩'의 대안으로 각각 슈미즈와 색 드레스

---

29) Harper's BAZAAR, 1999년 6월호, p.57
30) 조규화, 50년대 여성 패션의 회고 : New Elegance, 서울 : 반도패션, p.18

(Sack Dress)(그림27)를 내놓으며 특히 발렌시아가는 느슨한 허리 실루엣의 선구자로 7부 바지와 스탠드 칼라를 위한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했다.

새로운 흐름을 지지하는 자들은 몸을 구속하는 속박에서 여성들을 해방시켰다고 좋아했다. 그리고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이 주연한 영화 '사브리나'와 '퍼니 페이스'에서 지방시가 디자인했던 의상이 대중적으로 크게 유행하였다.[31]

한편 샤넬은 샤넬슈트를 내놓았는데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의 길이인 샤넬라인(Chanel Line)은 현대의복의 '보편적인 스커트라인'이 되었다.[32](그림28)

<그림 25> 록큰롤 패션인 영국의 테디보이스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그림 26> 디올의 튜립라인 실루엣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31) Harper's BAZZAR, 1999, 6월호, p.57
32) 조규화, 디자인천재들의 작품을 통해 본 현대 패션 100년사, 그 발전의 비밀. 「멋」.

<그림 27> 57년Givenchy의 'Sack Look' 「Fifty Years of Fashion」

<그림 28> 무릎길이의 샤넬라인의 샤넬수트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2) 헤어스타일

50년대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점차 증가하게 됨에 따라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인 머리모양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긴 머리, 짧은 머리, 염색머리, 가발 등 다양하게 머리모양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TV의 보급과 컬러영화, 카메라의 등장으로 머리스타일의 유행속도는 더욱 급속히 진행되어 갔다.[33] 즉, 이전에 주로 해왔던 평면적인 헤어스타일 보다는 입체감을 충분히 살리고 풍부한 웨이브를 살리는 개성있는 헤어스일을 추구하였다.

한편 1950년대에는 미국 뮤지컬 '남태평양'에서 주연이었던 매리 마틴(Mary Martin)은 짧게 Curl이지는 컷트를 유행시켰고 짧은 머리가 유행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긴 머리로 부드럽게 뒤에 빗어올려 '프렌치 트위스트 스타일(French Twist Style)'로 돌려졌고 이 헤어스타일의 반쪽

33) 양은록, 97년 이후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키치적요소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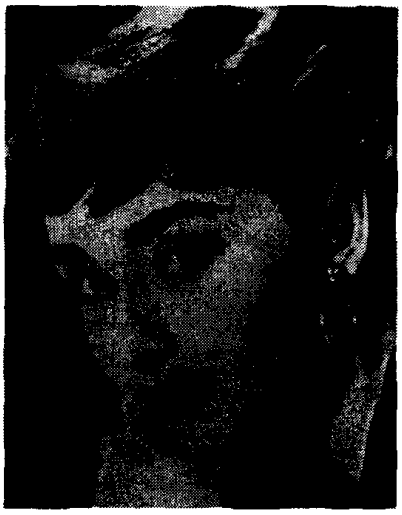
에 모자와 베일이 쓰여져서 부드럽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다. 50년대초의 10대 소녀들은 긴 머리를 뒤로 모아 고무줄이나 끈으로 당겨 묶은 스타일을 포니 테일(Pony Tail) 또는 호올스 테일(Horse Tail)이라고 하여 즐겨하였으며, 곧 긴 머리는 머리 전체를 짧게 잘라 곱슬거리게 한 머리형태인 푸들 컷(Poodle Cut)(그림29) 혹은 이탈리아 소년머리보다 약간 더 길면서 모발의 약 4㎝ 길이 정도로 잘라서 이마와 뺨에 납작하게 붙인 곱슬 애교머리 스타일로 바뀌었으며 이 스타일은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이 잘 어울리게 연출하여 픽시 컷트(Pixie Cut)라 하여 유행시켰고(그림30), 짧은 헤어스타일이 약간씩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버블 스타일(Bubble Style)로 바뀌어 갔으며 이 스타일은 머리카락 약 7㎝ 정도 길이를 큰 롤로 감아서 둥글면서 솜털같은 모양으로 만든 스타일로 어린아이같이 상처받기 쉬운 약점이 개방적인 관능미와 조화를 이룬 마릴린 몬로(Marilyn Monroe)가 이 스타일의 전형이었다.[34](그림31)

또한 20대후반 여성들에게서는 사이드 가리마에 올백을하고 모발중간부분에서 끝부분에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한 헤어스타일이 각광을 받았다.(그림32)(그림33) 그리고 젊은 여성들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은 프랑스의 여배우 브리짓트 바르도(Brigitte Bardot)로 긴 머리에 머리카락은 고의로 흐트러트린 단정치 못한 스타일이고 앞은 매우 부드러운 벌집과 같은 모양의 흐트러지며 부풀려진 모발안으로 빗겨 넣어졌으며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여성들에게 크게 유행하였다.(그림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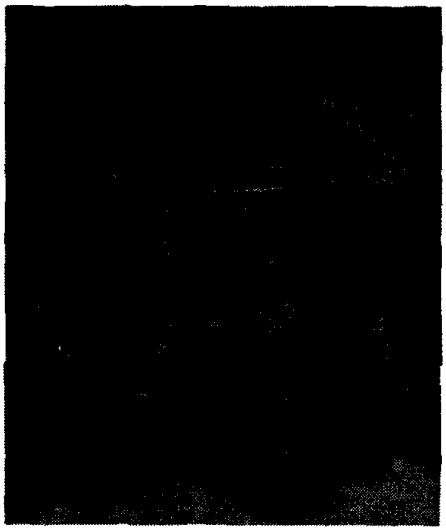
---

34) Irene Corey, 「The Face is a Canvas」, New Orleans : Anchorage Press, Inc., 1990, p.206

<그림 29> 50년대 Poodle Cut과 Pony Tail St,le
출처 「Face is a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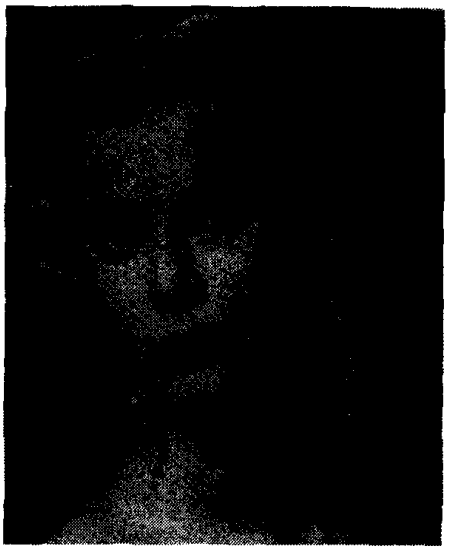


<그림 30> 50년대 오드리 헵번의
픽시 컷트스타일
출처 「Face is a Canvas」



<그림 31> 50년대 Bubble Hair Style
출처 「Face is a Canvas」

<그림 32> Ava Gardener의
웨이브 헤어스타일
http://costumegallery.com/



<그림 33> Grace Kelly의
웨이브 헤어스타일
http://costumegallery.com/

<그림 34> 브리짓드 바르도
출처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6. 1960년대

1) 복식

60년대 들어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함께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새로운 개척정신'이라는 구호 아래 청년 봉사단을 세계로 전파하고 아폴로 계획과 지역 개발사업, 빈민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양극체제에서 벗어나 우호 방향으로 전환하려했다. 이때 이런 자유화 바람을 타고 미국은 흑인 민권운동과 빈곤에 대한 전쟁 그리고 월남전 개입에 대한 반전 여론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미국의 역대 가장 젊은 48세의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젊고 매력적인 재클린 케네디는 심플한 수트와 드레스, 챙이 없는 '필박스' 모자, 진주 장식, 낮은 굽의 구두, 골드체인 백, 재키 선그라스 등 일명 '재키 스타일'을 유행시키며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게 되었다.(그림35)

한편 젊은 감각이 사회에 만연하여 미니멀리즘 사상이 부각되면서 패션에서도 이를 반영한 '미니 스커트(Mini Skirt)'를 1965년 영국 디자이너 메리 퀀트(Mary Quant)가 대중들에게 선보였고(그림36), 가냘픈 몸매의 영국의 인기모델인 트위기(Twiggy)가 자주 입고 등장했으며 이 미니스커트는 초기 25인치 정도에서 점점 짧아져 18인치 길이로 제작 판매되었으나 서구 여성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성들에게 1960년대 폭발적으로 사랑받는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미니멀리즘과 파격적인 의상추구는 1964년 미국의 신예 디자이너인 루디 건릭(Rudi Gernreich)은 톱리스(Topless) 수영복을 선보였다.

60년대 중반의 우주선 발사계획과 유인 우주선 달착륙은 '스페이스 에이지 룩(Space Age Look)' 이라 명명되는 독특한 의상을 앙드레 꾸레쥬

(Andre Courrege)와 피에르 가르뎅(Pierre Cardin)이 탄생시켰으며,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은 형태면에서 단순한 '팝아트(Pop Art)'적 요소를 반영해 디자인하였고 1965년 네덜란드 추상화가인 몬드리안의 강렬한 색채와 작품을 도입해 소매가 없는 단순한 의복을 디자인한 '몬드리안 룩(Mondrian Look)을 발표했다.(그림37) 파코라반(Paco Rabanne)은 지금까지 의복소재로 사용하지 않았던 금속, 셀로판,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을 사용하였다.(그림38)

1960년대 후반에는 반전과 평화를 원하며 자연으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집단인 히피가 패션에 많은 부분 영향을 주었다.

히피는 반전의 상징인 꽃을 프린트나 액세서리로 많이 사용하였고, 손뜨개나 패치워크, 전원풍의 집시의상이나 주름, 인디언의 술장식, 동양풍의 자수, 끝이 풀어진 길이가 긴 케이프(Cape), 자유롭게 염색한 티셔츠나 유럽 농부들이 입었던 페전트(Peasant) 블라우스처럼 헐렁하고 얇은 상의와 긴 스커트를 즐겨 입었으며, 특히 영국 런던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에게 전파되어 대중적으로 유행하여 하류계층에서 상류계층으로 상향 전파되는 양상을 보였다.[35](그림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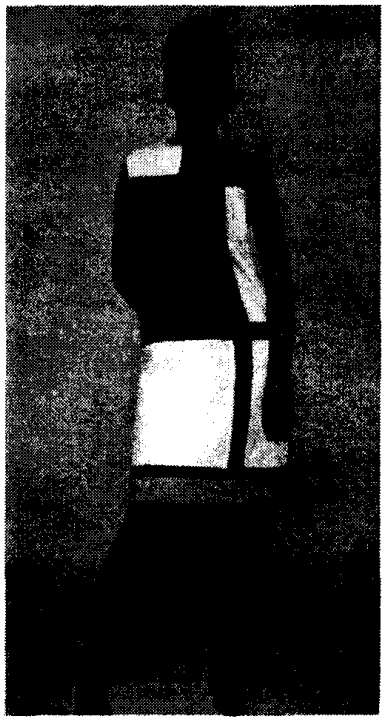
사회에 진출한 여성수가 늘어 남녀평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960년대는 테일러드 팬츠가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캐주얼뿐만 아니라 정장에서도 남녀의상이 거의 동일한 모양으로 변해 갔으며 점점 남녀 의복 차이가 줄어드는 유니섹스(Uni Sex)가 일반화 되어갔으며 또한 히피들은 유니섹스 모드를 대중화시켜 진(Jean)으로 만든 의복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애용되기 시작했다.

---

35) Fashion 1900~2000(현대패션 100년), 현대패션 100년 편찬위원회, 교문사, 2002, pp.217~218

<그림 35> 60년대 필박스 모자를 쓴 재키 케네디
출처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그림 36> 65년 Mary Quant 'Mini Skirt'
출처 「서양의 복식문화」



<그림 37> 1965년 입 생 로랑의 'Mondrian Look'
출처 「서양복식」

<그림 38> 60년대 파코 라반의 금속소재 의상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그림 39> 페전트 블라우스와 스커트
「서양복식」

2) 헤어스타일

1960년대는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가장 많은 시기로 여성스럽고 부드러우며 성숙한 매력을 표현하는 시기로 헤어컷트 기술의 향상과 다양한 형태의 헤어스타일이 등장했으며, 두정부가 높고 불룩하게 볼륨있는 스타일, 보이쉬한 스타일, 소녀적이고 인형같은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여성들은 더 높고 불룩하게 부플리는 형태인 부팡(Bouffant) 스타일을 좋아해서 60년대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머리 뒷부분에 공기를 넣은 것 같이 과장된 헤어스타일을 했다. 머리를 부플리는 스타일은 머리의 길이와 상관이 없이 모두 하였는데, 비히브(Beehive)라는 스타일은 긴머리를 백코밍(Backcombing)해서 뒤로 넘겨진 모양을 말한다.(그림40)

머릿결과 반대로 빗질해서 부풀리는 백코밍기법은 60년대에 매우 유행하였고 헤어 피스와 가발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스타일은 60년대 초 엄청난 인기를 누린 J.F. Kennedy 대통령의 영부인인 재클린 캐네디(Jacqueline B. Kennedy)는 그녀의 생기발랄함과 단순한 우아함으로 여성들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고 그녀가 즐겨한 벌집모양같은 불룩한 머리모양을 엉킨 더미처럼 모양을 만들고 바깥층은 매끄럽게 다듬고 헤어 스프레이로 단단하게 모양을 고정하였으며 이 스타일은 후에 곱슬곱슬한 벌집모양으로 변화, 확대되었다.[36](그림41)

그리고 미니 스커트를 만든 영국 디자이너 마리 퀀트(Mary Quant)는 소년같은 외모의 영국 10대 모델인 트위기(Twiggy)에게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컷트한 비달 사순(Vidal Sassoon)의 헤어스타일을 수용하여 남녀 구분이 뚜렷이 가지 않는 젊음을 표현했다.[37](그림42)

---

36) Irene Corey, 앞의 책, p.210
37) 위의 책, p.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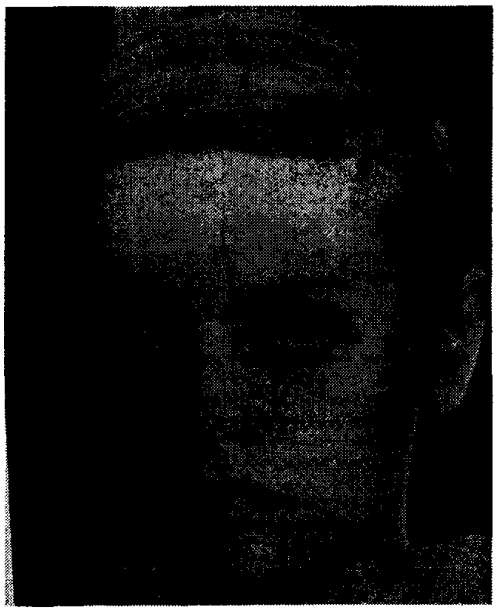
또 다른 유행한 스타일로는 60년대의 미국의 청년문화의 반영으로 불평등하고 비도덕적이며 억압적인 기존체제에서 이탈하고 반항했던 히피 스타일(Hippie Style)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 시대에 유행한 짧은 머리나 인공적인 머리 스타일에서 벗어나 다듬지 않은 채 길게 풀어헤쳐 자연스런 모양으로 나타내었다.(그림43)

한편 195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미국의 흑인민권운동의 영향은 백인의 머리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흑인의 아름다움이 찬양되면서 유행하기 시작한 이 스타일은 꼬불꼬불하고 부시시한 흑인 특유의 머리를 별 손질 없이 빗질하여 부풀린 모양으로 아프로 스타일(Afro Style) (그림44)이라 하였고 60년 말에는 모발의 높이와 넓이를 같게 좀 길은 모양이었다가 그 후에는 '내츄럴(Natural)'로 알려진 아프로보다 짧은 스타일이 나타나게 되었다.[38]

<그림 40> 60년대 Beehive 헤어스타일
출처 「Face is a Canvas」

<그림 41> 재클린 케네디의 헤어 스타일
출처 「20세기 패션」

38) Annalee Gold, 전게서, 1975, p.71



<그림 42> 비달 사순의 기하학적 컷트의 '모즈' 스타일을 한 Twiggy
출처 「Face is a Canvas」

<그림 44> 흑인들의 Afro 헤어 스타일
출처 「Face is a Canvas」

<그림 43> 1960년대 Hippie Gathering
출처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7. 1970년대

1) 복식

1960년대가 낙천적이고 경쾌하고 혁신적인 시대였다면 1970년대는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 경제의 인플레가 심해져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실업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서 절약이 미덕인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룹인 흑인, 동성애자,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저항하며 알몸으로 벗고 뛰는 스트리킹(Streaking)을 선보였으며, 자유와 사랑을 근거로 나체와 프리섹스가 만연하면서 성에 대한 관념이 무너졌으며, 범죄, 마약, 낙태, 음란예술 등 부도덕한 행위가 성행하게 되었다. 또한 윤리적이지 못한 흥미 본위이며 상업적인 통속물(Kitsch)이 크게 유행하였으며, 이것은 '펑크(Punk)'를 낳게 되었고 핑크는 원래 속어로 시시한 사람, 재미없는 것 불량소년·소녀, 풋내기 등의 의미[39]로 70년대의 영패션은 펑크(Punk)와 팝(Pop)의 영향으로 비구조적이고 일상적(Casual)이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형태가 되었으며 펑크 패션은 런던의 젊은이들에게 유행하여 평화스러운 스타일로 정리되었고, 하이패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잔드라 로즈(Zandra Rhodes)는 펑크감각을 하이패션에 도입한 대표적 디자이너이다.

복장의 혁명으로 70년대의 심플하고 자유로운 생활방식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진(Jeans) 팬츠와 티셔츠 등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하여 젊음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이후 전 세계적 인기를 누렸다.(그림45) 진팬츠는 티셔츠와 함께 착용되면서 유니섹스 룩을 정착시켰고, 엉덩이를 드러내는 핫팬츠(Hot Pants) 역시 1970년 유럽에서 선보인 뒤 바로 다음해 미국에서 유행했다.

한편 70년대 초 페전트 드레스(Peasant Dress, 유럽 농부복의 특징인 느슨한 개더 스카프, 퍼프 슬리브의 꼭 맞는 블라우스, 자수 장식이 들어있는 드레스)의 유행은 '노스탈지아'라고 불리는 복고풍 로맨티시즘의 영향으로 건강식품, 생태계보존, 세계평화에 대한 관심이 패션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실용적이고 저렴한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개성을 연출하는

39)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 경춘사, 1995, p.623

레이어드 룩 (Layered Look)과 헐렁한 루스(Loose) Look이 유행했고 에스닉과 조화를 이루어 모던한 오리엔탈 풍으로까지 발전했다.[40](그림 46) 또한 70년대는 여성들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던져버리고 매니쉬한 팬츠 수트를 입음으로써 패션에서 남녀 구분이 모호해졌고, 이탈리아 디자이너 중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가 1974년 밀라노에서 첫 남성복 컬렉션을 보였고 다음해부터는 여성복 컬렉션도 함께 선보였으며, 편안한 테일러링과 가볍고 고급스러운 소재와 중성주의의 맵시있는 편안함이 특징인 아르마니 스타일은 현재까지도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1978년 존 트래볼타가 주연한 미국영화<토요일밤의 열기>는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그가 입고 나왔던 오픈 칼라 셔츠와 흰 수트는 디스코 패션의 대명사로 세계적으로 유행했으며(그림47), TV 시리즈물을 통해 70년대 중반에 등장한 파라 포셋의 건강미를 동경해 몸매 다듬기인 조깅이나 에어로빅이 유행했으며, 섹시함과 스포츠가 결합된 운동복 패션이 유행하였다.(그림48)

<그림 45> 70년대 Jeans의 대중화
출처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그림 46> 70년대 잔드라 로즈의 에스닉한 의상
「The Face of The Century」

40) Harper's BAZZAR, 1999, 8월, p.64

<그림 47> 존 트라볼타의 디스코 패션
출처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그림 48> 제인 폰다의 에어로빅

2) 헤어스타일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헤어 스타일이 더욱 다양하게 되었다.

60년대부터 유행했던 미니스커트와 함께 비달 사순의 보브 컷트라는 헤어스타일이 유행의 절정을 이루었고(그림49), 뒤이어 일반적인 컷트보다는 뒤가 약간 길며 전체적으로 삐죽삐죽한 질감이 살아있는 새기 컷트(Shaggy Cut)도 유행하였다.(그림50) 70년대 초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자연으로 회귀하자는 운동과 함께 정교하게 잘 꾸며진 머리는 유행에 뒤진 것으로 여겨졌으며,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모양의 퍼머 웨이브나 어깨길이의 웨이브와 같이 바람머리와 같은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형태를 선호했다. 또한 1940년대의 스타일인 타티스타일(패드달린 어깨와 무릎길이 스커트에 테일러드 자켓과 여유있는 엉덩이 길이의 코트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그 당시 인기있던 배우인 리타 헤이워드(Rita Hayworth)의 웨이브와 컬이 유행하였다.[41]

41) 전선정 외 3인, 전게서, p.204

30, 40년대의 긴 단발머리가 유행하였으며 유니섹스 스타일의 의복이 유행하면서 헤어스타일도 남녀구별이 적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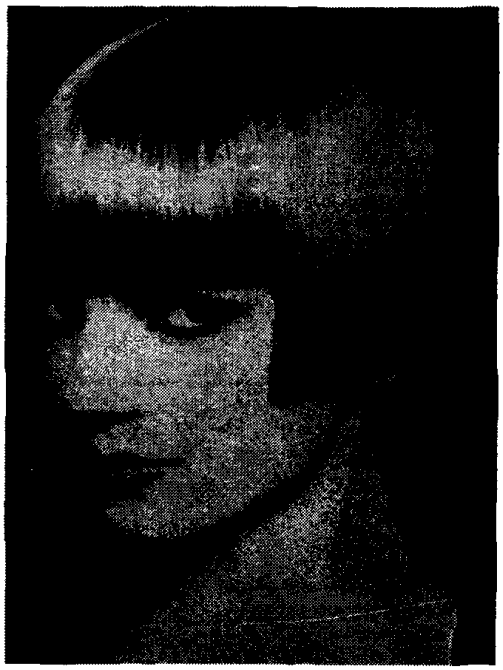
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30년대의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복고적인 분위기가 영향을 주어 자연스럽게 컬이 진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T.V 시리즈물인 '찰리의 천사들에게'에서 특히 파라 포셋(Farrah Fawcett)(그림51)의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이 크게 유행하였으며[42] 한편 60년대 아프로 스타일이 유행한 이후로 70년대 초반에도 '콘로우(Cornrows)'라는 흑인 스타일의 머리형태가 나타났는데(그림52) 이것은 흑인을 위한 새로운 머리스타일을 많이 디자인한 미국 뉴욕의 아프리카 뷰티센터에 있는 죠서퍼라는 파리의 디자이너가 고안한 것으로 흑인조상들의 머리형태처럼 머리를 나누어 구분해서 옥수수 모양으로 땋은 것이다. 이것은 원래 남성들의 머리형태였으나 여성이나 어린이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패션에서 차지하는 헤어스타일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풀린 듯한 웨이브 퍼머와 스트레이트 퍼머 스타일도 함께 유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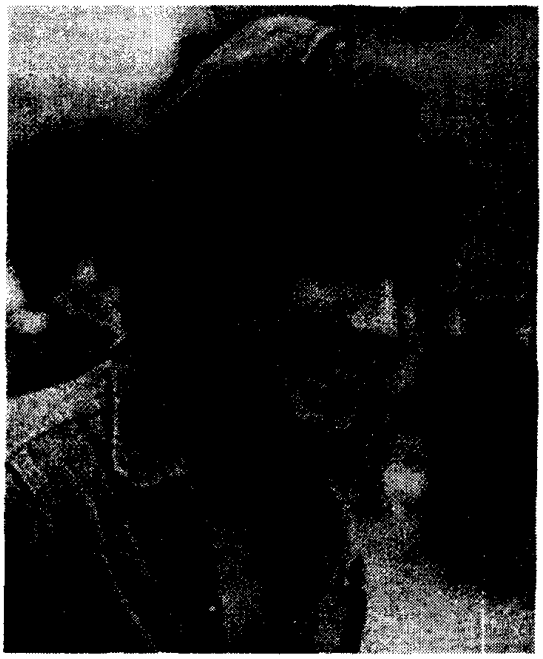
70년대 후반 펑크를 좇는 청소년들은 머리카락을 매우 자극적인 색, 밝은 분홍색이나 초록색으로 염색했으며, 줄무늬와 조각 효과들을 주기 위하여 강렬한 색상을 섞어 사용하기도 하였다.(그림53)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염색이 유행하게되어 모발손상을 염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컨디셔너(Conditioner)가 개발되었고 모발보호를 위해 단백질 성분의 프로테인(Protein) 헤어제품이 사용되었다.

---

42) 김희숙, 앞의 석사학위 논문, 1994,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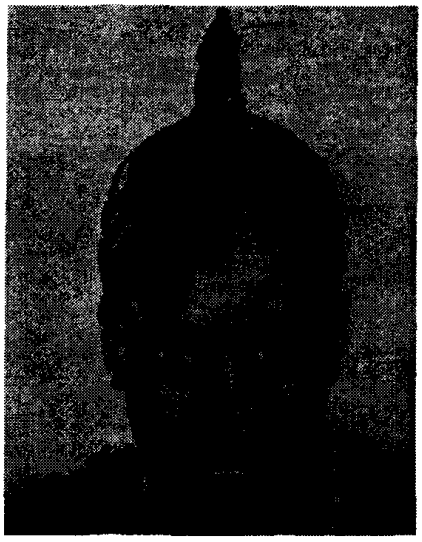


<그림 49> 비달 사순의 보브 헤어스타일
「Vidal Sassoon」, p.65



<그림 50> 70년대 샤기컷트
(Shaggy Cut)
http://costumegallery.com/

<그림 51> 1970년대 파라 포셋의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
출처「Fashion Source Book」



<그림 52> 70년대 흑인들의
콘로우(Cornrows)스타일
출처 「Face is a Canvas」

<그림 53> 펑크 헤어스타일
출처 「마뀌아쥬 예술」

8. 1980년대

1) 복식

1980년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냉전체제의 세계정세에 주요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미국의 레이건(R.W. Reagan) 대통령, 영국의 대처(M.H. Thatcher)수상이 당선되면서 서방세계는 다시 보수주의의 성향을 띠게 되었고, 그동안 고조되어왔던 냉전의 분위기는 87년 소련 고르바쵸프(M.S. Gorbachyov) 대통령에 의한 글라스노스트(Glasnost : 개방),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yka : 개혁)을 외치며 개방정책을 실시하였고 89년에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새로운 정치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고[43], 산업사회의 결과인 기능 제일주의하에 모든 것이 규격화되고 동시화된 인간성 상실 시대에서 생활양상이 다양화하고 인간 감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의식변화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이 의식하에 뉴 웨이브(New Wave)의 일반예술이 싹트게 되고 이것의 영향으로 복식에서도 뉴 웨이브 패션(New Wave Fashion)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뉴 웨이브 패션의 일반적인 모드는 사회 참여의식이 강한 전후 베이비붐 세대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클래식(Classic)한 분위기의 매니쉬(Manish)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것과 연관되어 전통성과 기능성 위주의 테일러 복식에 젊은 세대의 전위적 패션요소를 받아들여 현대적인 맛을 가미한 룩(Look)이다.

이 뉴 웨이브 패션을 펑크(Punk),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ism), 네오 모더니즘(Neo-modernism),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룩 등의 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양식들은 젊은 아방가르드(Avantgarde)한 세

---

43) Fashion 1900~2000(현대패션 100년), 현대패션 100년 편찬위원회, 교문사, 2002, p.268

대가 주축으로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애호하며 풍부한 감성을 표현하였는데 이것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4)

첫째, 펑크 패션(Punk Fashion)은 70년대 후반 영국의 젊은 노동자계층에서 발생해 76년 영국 록밴드의 무대의상으로 입혀지게 되었다. 앞날에 대한 절망감이나 욕구불만, 기성사회에 대한 젊은이들은 반항을 표현한 반모드 현상으로 모히칸족 스타일, 쇠사슬, 기분나쁜 메이크업, 가죽소재의 오토바이복장 등의 공격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것이 특징이나 하이패션계에 새로운 신선함을 던져 주었으며 현재에도 헤어스타일이나 액세서리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그림54)

둘째, 포스트 모던 패션(Post Modern Fashion)은 1982년 패션에서 받아들인 개념으로 과학기술에 지배받는 기능성을 초월해서 치장하는 일이 큰 의미인 과거의 모드를 현대로 가져와 새로운 매력을 창조하려는 노력으로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아르 데코의 조형감각의 부활, 장식적인 수공예기법과 현대 감각의 전출, 동·서양 양식의 상호절충, 전통적 남성복 요소의 여성복에의 도입, 현대적인 액세서리나 착장법에 따른 전통적인 품목의 이미지 변화 등으로 나타난다.(그림55)

셋째, 네오 모던 패션(Neo Modern Fashion)은 83년 유행감각으로 하이테크니컬(High Technical)한 차가움 속에, 유머, 우아함, 따뜻함 등 인간의 정서를 가미시킨 것이 특징으로 건축에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네오 모더니즘은 뚜렷이 구별되지만 복식에 있어서는 양식의 특징으로 보아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전위적 모던 감각과 20년대의 클래시시즘(Classicism)의 융합, 심플한 의복 전체에 초상화·만화·낙서등을 표현한 아트 모드(Art Mode)속의 유머, 기능성을

44) 임원자·백영자, 서양복식,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1997, p.329

가지면서도 종래의 의복의 형태를 부정한 비구축적인 실루엣 등이다.

넷째,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으로 84년 말부터 등장한 '남녀공용의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성 역할의 차가 사라지는 오늘날, 자신의 성(性)을 부정하지 않고 순수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자유롭게 융합한 형이 없이 남녀가 모두 입을 수 있는 복식의 조화이고 남녀 의복의 단품을 한 외관에 코디시키는 것, 여성복식에 남성복 요소를 도입하거나 자유로운 변형에 의한 이미지 변화로 볼 수 있다.[45](그림56)

이상에서 살펴본 복식스타일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예로는 돌체 & 가바나의 란제리룩, 팝가수 마돈나가 입은 장폴 고티에의 브래지어 룩(그림57), 신디로퍼의 펑키한 레이어드룩, 가수 보이조지, 프린스, 데이비드 보위등 남성 뮤지션들의 여성스런 복장과 진한메이크업, 활발한 여성의 사회 진출로 생겨난 매니쉬 룩(Manish Look)이라 할 수 있다.(그림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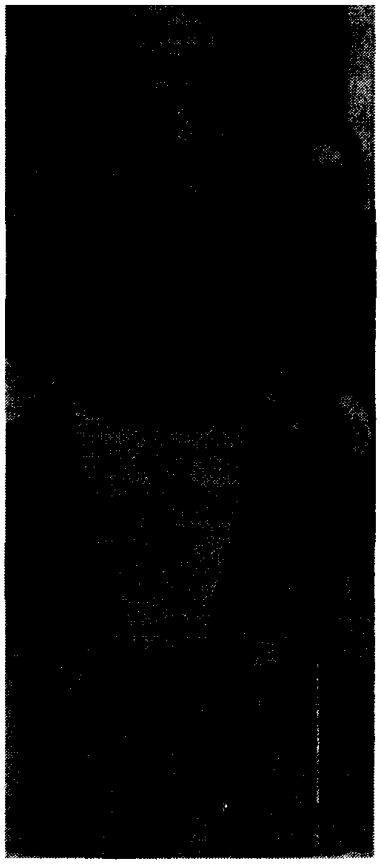
<그림 54> 1980년대 잔드라 로즈의 펑크감각의 패션
출처 「서양복식」

<그림 55> 1980년대 포스트모던 패션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45) 앞의 책, pp.330~331

<그림 56> 80년대 앤드로지너스 룩
출처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그림 57> 1980년대 장 폴 골티에의 코르셋 룩
출처 「Fifty Years of Fashion」



<그림 58> 80년대 여성의 매니쉬 룩
출처 「20세기 패션」

2) 헤어스타일

만약 1980년대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매체이다. 헤어스타일은 이전시대보다 좀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한 사회안에 많은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했으며, 유행은 그 주기가 점점 짧아졌고 기능성과 스포츠에 대한 참여로 더 간단한 머리 손질이 필요하게 되었다.[46] 전문 뷰티 살롱이 대중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였고, 헤어드레서(Hair Dresser)의 왕성한 창작활동으로 매년 창작품을 쇼 형태 등으로 발표하여 그 해의 트렌드를 미리 짐작할 수 있게 되었고 개

46) Irene Corey, 전게서, p.222

성의 강조로인하여 여러 가지 소품들이 스타일링의 소재로 등장하면서 토털 패션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80년대의 가장 특징적인 머리형태는 펑크스타일(Punk Style)로 70년대 후반에 영국의 번화가인 King's Road를 중심으로 생활하던 실업자 혹은 노동자 계층의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 발생한 그룹으로 좌절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문화적 반향집단으로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회에 대해 혐오스러운 복장과 괴상한 형태나 색상으로 염색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녔다.

펑크족의 머리형태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머리의 양옆은 면도를 하고 앞이마부터 뒷목둘레까지는 둥근 모양으로 자르는 모호크스타일(Mohawk Style)[47](그림59)과 불규칙한 길이의 머리를 빳빳하게 세운 스파이키 스타일(Spiky Style)(그림60), 옆머리는 자르지 않은 채 머리가운데 뿐으로 모발을 모아 부채살 모양으로 젤이나 무스로 빳빳하게 세운 폴큐핀 스타일(Porcupine Style), 머리를 모발이 하나도 없이 빡빡 깎아서 그 위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다니기도 한 스킨 헤드(Skin Head)(그림61)등이 있다. 그 중 모호 스타일이 가장 유명했다.[48]

80년대 초반의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너비이 구혼과 결혼을 세계인들은 황홀하게 지켜보았고 이때 다이애너비의 컷트 스타일(그림62)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유행을 몰고 왔고 긴 머리는 때때로 프랑스식 땋은 머리의 변형된 스타일(그림63)로 손질되었고 흑인 여자 모델이자 엔터테이너인 그레이스 존스는 옆머리는 밀고 머리카락은 위로 뻗치게 하여 Top(머리 윗부분)부분은 평평한 컷트로 마무리하여 기하학적인 실루엣을 창출하였다(그림64). 가수 신디 로퍼는 펑크헤어스타일의 다양한 색상과

---

47) Mohawk : 모호크족, 미국 New York 주에 살던 북아메리카 원주민
48) 전성정 외 3인, 전게서, P.211

스타일을 연출해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여성들의 매니쉬룩의 영향으로 매니쉬한 헤어스타일도 유행하였다(그림65).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다양한 미용기구의 발달로 여러 형태의 헤어스타일이 등장하였으며, 헤어 드라이어와 스프레이, 무스 등의 사용으로 앞머리를 높이 세우는 스타일이 유행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항상 머리형태가 정돈되어 단정해 보이고 세련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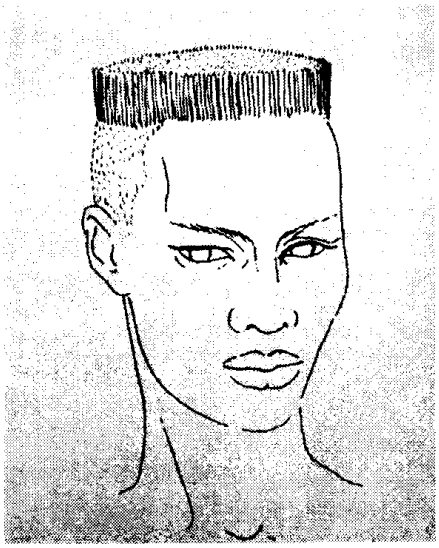
<그림 59> 80년대 모혹 헤어스타일
출처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그림 60> 스파이키 헤어스타일
출처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그림 61> 스킨 헤드 스타일
출처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그림 62> 다이애너비 컷트스타일
출처 「Face is a Canvas」

<그림 63> French Braids
출처 「Face is a Canvas」



<그림 64> 그레이스 존스의
'Flat Top' Hair Style
출처 「Face is a Canvas」

<그림 65> 매니쉬 헤어스타일
출처 「Face is a Canvas」

9. 1990년대

1) 복식

1990년대의 글로벌리즘(Globalism)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 변화에 기반을 둔 것으로 전자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 그리고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문자 그대로 세계는 하나의 지구임을 실감하게 되었으며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가며 국제화 또는 세계화되는 새로운 21세기로 이행되는 시기였으며. 지구촌은 90년대 들어 서면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는 패션도 예외가 아니었다. 즉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촌의 위기감은 리사이클과 내츄럴리즘을 강조하여 패션의 색상, 소재,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에콜로지(Ecology)는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중시하는 정신 세계에 대한 향수로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이 독특하게 재구성된 세련된 이미지를 선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에스닉(Ethnic), 그런지(Grunge), 네오히피(Neo-Hippie)(그림66), 노출 패션,

Street Fashion, 복고풍(Retro)(그림67) 등으로 나타났다.

유행은 발빠르게 진행되었고 때로는 시즌중에 유행이 바뀔 정도로 빠른 패션 정보는 패션매거진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었다.[49](그림68)

90년대 가장 압도적인 패션사조는 미니멀리즘으로(Minimalism)(그림69)으로 조르지오 아르마니, 캘빈 클라인(Calvin Klien), 프라다(Prada), 질 샌더(Jil Sander) 등의 디자이너들은 깨끗하며 모던한 룩을 선보였고 에콜로지의 일종인 그런지 패션은 '흐트러지게 옷입는 것' 으로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가 1993년 컬렉션에서 발표한 것으로 거리패션이 하이패션으로 옮겨간 것이며 헬무트 랭(Helmut Lang)과 토미 힐피거(Tommy Hilfiger) 등의 디자이너들은 스트리트에서 영감을 받아 대도시 저소득층 10대들의 의상에서 영감을 받은 힙합 룩(Hip-Hop Look)을 이끌어 내었고,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이 부상함으로 인해 스포츠 브랜드들도 함께 떠오르고 디자이너들도 스포츠 라인을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시스루 룩(See-through Look)과 슬립, 브라, 팬티가 아웃웨어로 응용되는 란제리 룩(그림70)이 유행하였고 90년대말 유행한 미니멀리즘에 대한 반작용으로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 요지 야마모토(Yoji Yamamoto)의 소프트 아방가르드 스타일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되었고, 세계 패션의 백만장자인 랄프 로렌(Ralph Lauren)은 언더 웨어에서 향수, 보디로션 등 모든 것을 판매하는 패션제국을 설립했고 90년대 중반 패션 거대 기업이 등장하는데 특히, LVMH 기업은 Louis Vuiton, Givenchy, Christian Dior, Celine, Loewe 등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인수하고 세계적인 마케팅을 좀 더 활발히 해 나갔다.

---

49) Harper' s BAZAAR, 1999년 10월호, p. 72

<그림 66> 1990년대 샤넬을 위한
칼 라거펠드의 네오 히피스타일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그림 68> 1990년대 탑모델들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그림 67> 미니멀리즘 영향의
60년대를 재현한 재키 룩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그림 69> 90년대 미니멀리즘
영향의 원피스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그림 70> D & G의 Inner Wear Style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2) 헤어스타일

1990년대 와서는 개인의 독창성이 중요시 되어 의복에서도 어떤 한 가지의 주된 트렌드가 없이 각자의 개성 표현에 맞게 선택하듯이 다양한 헤어 스타일을 선택하고 있다. 헤어 컬러링이 80년대보다 훨씬 고도로 발달하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헤어 스타일은 인간의 다양한 감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50]

90년대 초에는 80년대에 나탄난 다양한 퍼머넌트 웨이브를 이용한 헤어 스타일에서 더욱 개성이 강한 퍼머를 하든지 아니면 컬이 없고 볼륨만 주는 롤 스트레이트(Roll Straight)퍼머를 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환경 파괴와 생태계의 보존 등이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것의 영향으로 에콜로지 룩이 유행하였고 이에 따라 헤어 스타일도 밝은 색의 길고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유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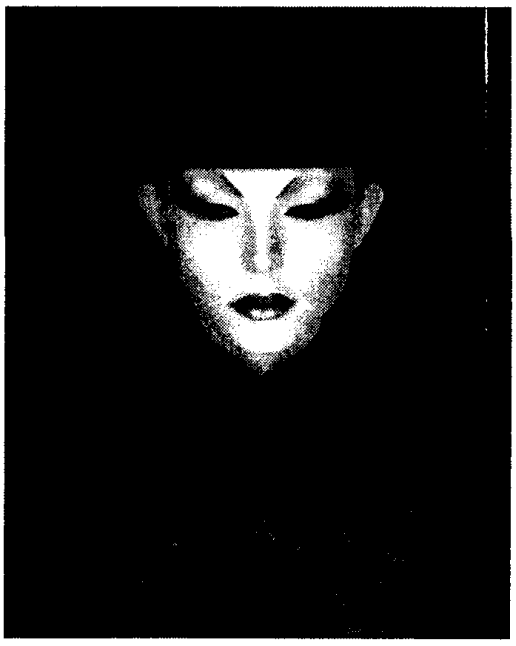
거리의 부랑적인 특성의 스트리트 패션이 하이패션으로 옮겨간 그런지 룩의 유행과 함께 직선적으로 앞머리를 짧게 자르고 뒷머리는 쇼트 컷트한 머리 형태도 유행하였고 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인종의 다양성이 인정되면서 힙합 레게 패션이 음악 등의 장르와 더불어 유행하게 되어 부스스한 머리를 가닥으로 나눈 머리, 머리 전체를 아프리카 흑인들의 스타일처럼 땋은 Afro Braids형의 헤어 스타일이 유행하였고(그림71), 오리엔탈 룩(Oriental Look)이 유행하면서 인도나 중국, 일본 등의 생머리나 앞머리를 직선으로 짧게 자른 형태가 보여졌으며(그림72), 미니멀리즘의 유행으로 인해 과잉장식을 배제한 단순한 형태의 짧은 머리 또는 긴 생머리거나 굵은 웨이브가 유행하였다.(그림73)(그림74)

---

50) 김희숙 , 앞의 박사학위 논문 , p.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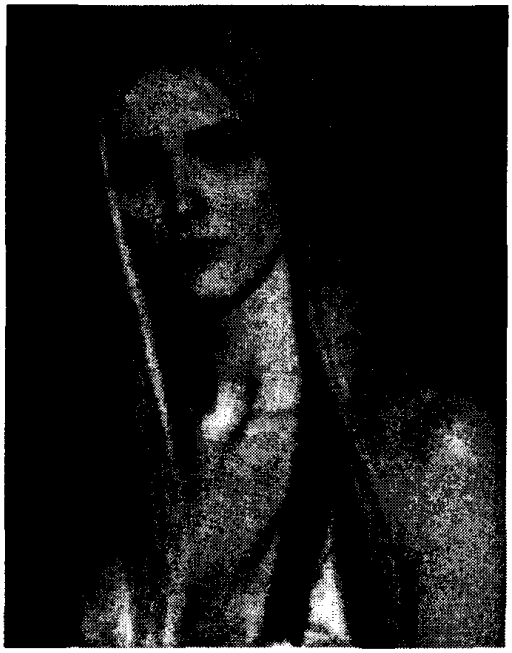
90년대 후반에는 개성이 강조되는 더욱 다양해진 패션이 유행되었는데 헤어 스타일은 주로 볼륨감을 주지 않는 두상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 흐르는 스트레이트한 생머리 형태가 주로 유행하였고 60년대 이후 전세계 헬어 패션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비달 사순(Vidal Sassoon)의 헤어 트렌드를 보면 대칭이 되지 않는 머리 형태의 어시매트리(Asymmetry)(그림75) 스타일, 머리길이는 자연스럽지만 중간중간 가운데 연결이 되지 않는 디스커넥션컷트(Disconnection Cut), 안쪽층 모발은 짧게 바깥쪽 모발은 길게 잘라 모발의 움직임을 최대로 보이게 하는 콘실 대 리빌(concealed vs revealed)스타일을 선 보이게 되었고 헤어 스타일이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이라는 성을 구분하는 단정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유행도 소집단적인 다양한 종류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한 헤어 스타일도 환상적인 형태와 모양을 한 예술 작품의 개념으로도 패션쇼와 헤어쇼에서 나타나게 되었다.[51]

<그림 71> 90년대 힙합 헤어스타일
출처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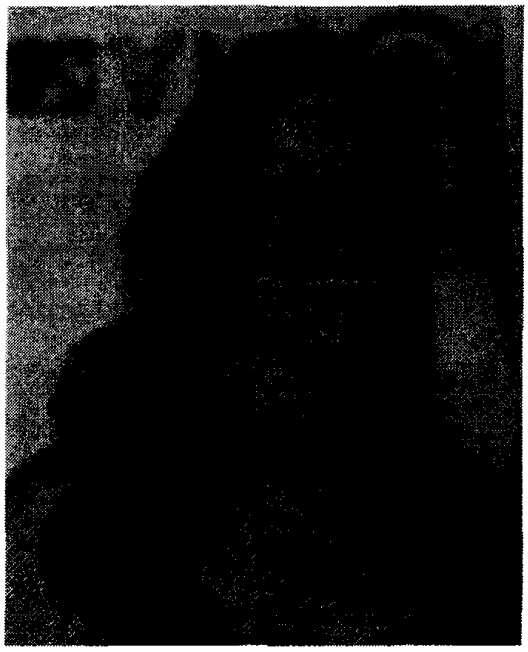


<그림 72> 오리엔탈풍의 헤어와
메이크업스타일
출처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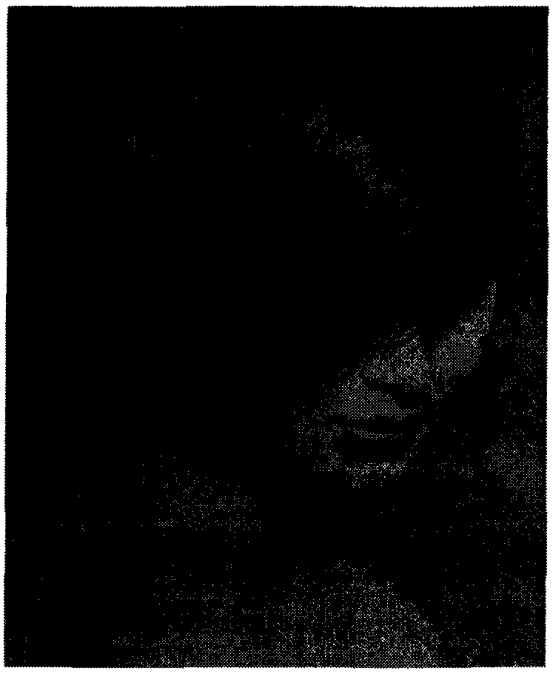
51) 전선정 외 3인 , 앞의 책 , pp.216 ~ 217



<그림 73> 볼륨이 없이 두상에 붙는
롱 스트레이트헤어
출처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그림 74> 굵은 웨이브 헤어스타일
http://costumegallery.com/



<그림 75> 90년대 비달 사순의
Asymmetry Style
출처 「Votre Beaute」

Ⅲ. 복식과 헤어스타일의 상관관계 연구

1. 벨 에포크 (Belle Epoque) 시대 (1900~1914년)

◉ 복식
- S자형 실루엣 ('S' letter Silhouette)
- 엠파이어 실루엣 (Empire Silhouette)
- 동방풍 모티브 의상 (하렘 팬츠, 기모노 스타일 의복)

◉ 헤어스타일
- 퐁파두르 헤어스타일 (Pompadour)
- 헤나(henna)염료를 사용한 적갈색 모발 유행

벨 에포크시대(1900~1914년)에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지위가 신장되고 디자이너 폴 푸와레가 코르셋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하게 되었고, 이시대의 예술사조인 아르 누보 양식의 풍요로움과 부드러운 곡선미를 반영한 약간 느슨하게 두상에 모발을 빗어 올려 고정된 퐁파두르 헤어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2. 제 1 차 세계대전 전·후의 시대 (1914~1930년)

◉ 복식
- 직선형 실루엣 (Tublor Silhouette)
- 보이쉬 스타일 (Boyish Style)
- 가르손느 스타일 (Garçonne Style)

◉ 헤어스타일
- 보브 스타일(Bob Style)
- 쉥글(Shingle)
- Eton Crop = Boyish Bob
- 크로쉐(Cloche)의 착용

제 1차 세계대전 전후의 시기(1914~1930년)에는 세계대전이라는 큰 사건을 배경으로 전쟁에 나간 남자들을 대신하여 여성들은 직장, 공장 등 사회의 분야로 진출하였고 러시아 발레단의 파리 공연으로 폴 푸아레는

동방풍의 호블 스커트, 하렘 팬츠, 기모노 스타일의 의복을 선보였고, 세계대전이라는 시대 배경과 남녀평등 사상의 대두로 단순함과 기능성을 추구하는 층이 없는 짧은 머리형태인 보브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1918년 연합군측의 전쟁승리와 그동안 군수산업의 발달로 인한 물질적 번영으로 소비와 쾌락을 추구하는 가운데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여성다움보다는 기능적인 튜블러 스타일인 보이쉬 스타일을 디자이너 샤넬이 내 놓아 대중적인 유행을 선도하였고, 이에 따라 헤어 스타일도 짧은 남성머리 형태인 이튼 크롭 또는 보이쉬 보브 형태가 유행하며 클로쉐라는 심플하고 착 달라 붙는 모자도 함께 사용하였다.

3. 1930년대

◉ 복식
- 다소 남성적인 실루엣
- 여체의 곡선미를 살린 Bias 재단의 실루엣
- 샤넬의 Poor Look

◉ 헤어스타일
- 퍼머넌트 웨이브의 보브스타일
- 시뇽스타일(chignon)
- 페이지 보이 보브 (Page Boy Bob)
- 베레모, 터번 착용
- 밝은 금발의 유행

1930년대 초기에는 29년의 세계대공황으로 시작된 불경기와 실업자 등의 사회불안과 정치적으로 불안했지만 30년대 중반 TV정규방송의 시작과 영화산업등이 발달하게 되었고 우아하고 성숙하고 여성스러운 실루엣의 의상이 다시 유행하였고 퍼머넌트 웨이브와 어깨길이의 단발 끝부분에 살짝 웨이브가 있는 페이지 보이 보브 스타일이 유행하고 작은 모자나 베레모, 터번 등이 사용되었고 밝은 금발의 탈색머리가 유행하였다.

4. 제 2 차 세계대전 전·후의 시대

◉ 복식
-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
- 디올의 뉴 룩(New Look)
- 디올의 라인 실루엣 (Line Silhouette)

◉ 헤어스타일
- 터번, 스카프, 챙이 넓은 모자 착용
- 풍성하게 웨이브진 헤어스타일
- 두상에 달라붙은 시뇽형태
- 베레모, 필박스모자
- 어깨길의 퐁파두르 헤어스타일
- 페이지 보이 보브 헤어스타일

제 2 차 세계대전 전후의 시기에는 39년에 발발한 2차 세계대전으로 대부분의 모든 문화와 패션 산업 등의 중심지가 미국으로 바뀌어져 갔고 전쟁무렵과 직후에는 밀리터리 룩이 유행하였으나 47년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둥글고 여성스러운 실루엣인 뉴 룩을 발표하게 되었고 헤어 스타일은 단순해진 퐁파두르, 페이지 보이 보브 또는 매우 짧은 머리의 픽시 컷트가 주를 이루었다.

5. 1950년대

◉ 복식
- 파리 Haute Couture 중심의 하이 패션
- 틴에이져 패션인 Rock' n Roll 패션(영국의 테디 보이스)
- 디올의 Line Silhouette
- 지방시의 'Sack Dress'
- 무릎길이 샤넬라인 스커트의 'Chanel Look'

◉ 헤어스타일
- Curl이 있는 짧은 컷트 헤어스타일
- French Twist Hair Style
- Pony Tail Style
- Poodle Cut
- Pixie Cut
- Bubble Style
- 자연스럽게 부풀려지고 흐트러진 헤어스타일

1950년대에는 인류역사상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시작한 시기로 헐리우드 영화산업이 매우 발달했고 그동안 기성세대와 상류층을 중심으로한 하이패션에서 미국청소년 등의 하위 문화가 형성되어 패션계를 이끌어 가는 복식사상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으며, 긴 머리를 올려 묶은 포니 테일, 짧은 곱슬거리는 형태의 푸들 컷트, 약간 짧고 둥글고 솜털같은 버블 스타일 또한 흐트러지고 부풀려진 형태가 유행하였다.

6. 1960년대

◉ 복식
- 재키 케네디 스타일
- Mini Skirt
- Space Age Look
- Hippie 패션
- 여성들의 테일러드 팬츠 수트
- 유니섹스 모드
- Jeans의 대중화

◉ 헤어스타일
- 부팡(Bouffant) 헤어스타일
- 비히브(Beehive)헤어스타일
- Vidal Sassoon의 기하학적인 모양의 컷트
- 다듬지 않고 풀어 헤친 히피 헤어스타일
- Afro 헤어스타일

1960년대에는 사랑을 중심으로 하고 미국의 월남전 참전반대, 반전 운동 등을 핵심으로 하는 히피들의 등장과 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흑인운동, 젊은이의 우상인 비틀즈의 등장으로 영패션 시대로 접어 들었고 복식에서는 미국의 재클린 캐네디 스타일, 디자이너 메리 퀀트의 미니 스커트, 우주 시대를 예고하는 디자인의 앙드레 꾸레쥬, 피에르 가르뎅, 팝 아트적 요소를 도입한 이브생 로랑의 몬드리안 룩, 히피 스타일의 의복, 유니섹스

모드의 경향이 있었다. 헤어 스타일로는 재클린 케네디 여사의 벌집처럼 부풀린 스타일, 10대의 어린 모델인 트위기에게 한 기하학적인 비달 사순 스타일, 다듬지 않은 채 길게 풀어 헤친 히피 스타일, 흑인 민권운동 영향으로 하게 된 둥근 부풀린 모양의 아프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7. 1970년대

◉ 복식
- 영패션(Punk와 Pop)
- 유니섹스 모드 정착
- Layered Look
- Loose Look
- 디스코 패션
- 스포츠 패션

◉ 헤어스타일
- 비달 사순의 보브 컷트
- 새기 컷트(Shaggy Cut)
- 긴 단발머리 - 유니섹스 모드 (남녀구별이 적어짐)
- 자연스러운 컬의 헤어스타일
- 콘로우(Cornrows) 스타일
- 모발염색의 대중화 시작

1970년대는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펑크족이 출현하게 되고 펑크 패션과 여러 벌 겹쳐 입는 레이어드 룩, 진 팬츠와 티셔츠착용으로 인한 유니섹스 룩이 정착되었고 헤어 스타일은 여배우 파라 포셋트의 자연스러운 바람머리가 유행하였고 일부에서는 펑크족들의 강렬하게 튀는 색상의 특이하고 위협적인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8. 1980년대

◉ 복식
- 클래식한 매니쉬 룩
- 펑크
- 포스트 모더니즘
- 네오 모더니즘
- 앤드로지너스 룩
- 란제리 룩

◉ 헤어스타일
- 모혹스타일
- 스파이키 스타일
- 스킨 헤드
- 다이애너비의 컷트 헤어스타일
- 프렌치 스타일
- 플랫 탑 스타일
- 매니쉬 헤어스타일

1980년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 체제의 와해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전환과 절대양식의 공존, 문화의 대중화를 일으키도록한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이 지배했고 복식 문화에서는 절망감, 기성사회에 대한반항의 펑크 패션, 포스트 모던 패션, 종래의 의복 형태를 부정한 비구축적인 실루엣의 네오 모던 패션, 남여 성공유의 의복인 앤드로지너스 룩이 있었고, 모혹 스타일, 스파이키 스타일, 스킨 헤드 등의 펑크 헤어 스타일과 다이애너비의 컷트 스타일과 매니쉬 룩의 영향으로 매니쉬한 짧은 컷트스타일이 유행하였다.

9. 1990년대

◉ 복식
- 에스닉, 그런, 네오히피 스타일
- 노출 패션, 란제리 룩
- 스트리트 패션, 힙합 룩

- 복고풍 스타일
- 미니멀리즘
- 스포츠 웨어
- 소프트 아방가르드

◉ 헤어스타일
- 트렌드보다는 각자의 개성표현
- 헤어 컬러링의 발달 고도화
- 강한 웨이브와 스트레이트 퍼머넌트
- 길고 자연스러운 웨이브
- 힙합·레게 헤어스타일
- 단순한 형태의 짧은 헤어스타일
- 뱅이있는 오리엔탈풍 생머리 스타일
- 어시메트리 헤어스타일
- 헤어스타일로 인한 성별구분의 격차 축소

1990년대의 글로벌리즘은 세계는 하나의 지구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으며, 지구촌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기감으로 대두된 에콜로지는 복식 등 모든 면에 영향을 주었고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모던하고 깨끗한 룩을, 그 외에도 그런지룩, 힙합룩, 스포츠룩, 시-스루룩, 란제리룩 등이 유행하였으며, 90년대에는 특별한 트렌드보다는 개성을 살린 다양한 스타일이 유행하는 가운데 헤어 컬러링이 고도로 발달되었고, 에콜로지룩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헤어 스타일, 힙합레게의 유행으로 아프리카 흑인들의 아프로 헤어 스타일, 오리엔탈룩으로 인한 동양적인 생머리 스타일, 과잉장식을 배제한 단순한 스타일, 헤어 디자이너 비달 사순의 모발의 움직임을 최대로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스타일, 남녀성을 뚜렷이 구분하지 않고 개성을 연출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Ⅵ. 결 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 20세기에 들어와 형성된 예술사조와 기타 미용관련 산업의 발달 등을 포함하는 시대적 배경인 사회 문화적 배경과 다양한 방면의 영향을 받으며 발달해 온 복식 문화와 특히 Hair Style에 관하여 1900년대부터 약10년 단위로 나누어 시대적으로 살펴 보았다.

벨 에포크시대(1900~1914년)에는 아르 누보 양식의 풍요로움과 부드러운 곡선미를 반영한 약간 느슨하게 두상에 모발을 빗어 올려 고정된 퐁파두르 헤어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 전후의 시기(1914~1930년)에는 층이 없는 짧은 머리 형태인 보브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짧은 남성머리 형태인 이튼 크롭 또는 보이쉬 보브 형태가 유행하며 클로쉐라는 심플하고 착 달라 붙는 모자도 함께 사용하였다.

1930년대 초기에는 퍼머넌트 웨이브와 어깨길이의 단발 끝부분에 살짝 웨이브가 있는 페이지 보이 보브 스타일이 유행하고 작은 모자나 베레모, 터번 등이 사용되었고 밝은 금발의 탈색머리가 유행하였다.

제 2 차 세계대전 전후의 시기에는 헤어 스타일은 단순해진 퐁파두르, 페이지 보이 보브 또는 매우 짧은 머리의 픽시 컷트가 주를 이루었다.

1950년대에는 긴 머리를 올려 묶은 포니 테일, 짧은 곱슬거리는 형태의 푸들 컷트, 약간 짧고 둥글고 솜털같은 버블 스타일 또한 흐트러지고 부풀려진 형태가 유행하였다.

1960년대의 헤어 스타일로는 재클린 케네디 여사의 벌집처럼 부풀린 스

타일, 10대의 어린 모델인 트위기에게 한 기하학적인 비달 사순 스타일, 다듬지 않은 채 길게 풀어 헤친 히피 스타일, 흑인 민권운동 영향으로 하게 된 둥근 부풀린 모양의 아프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70년대는 헤어 스타일은 여배우 파라 포셋트의 자연스러운 바람머리가 유행하였고, 비달 사순의 보브 컷트, 새기 컷트, 남녀구별이 적은 긴 단발머리, 흑인들의 콘로우 스타일, 일부에서는 펑크족들의 강렬하게 튀는 색상의 특이하고 위협적인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80년대는 모혹 스타일, 스파이키 스타일, 스킨 헤드 등의 펑크 헤어 스타일과 다이애너비의 컷트 스타일과 매니쉬 룩의 영향으로 매니쉬한 짧은 컷트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90년대에는 특별한 트렌드보다는 개성을 살린 다양한 스타일이 유행하는 가운데 헤어 컬러링이 고도로 발달되었고, 에콜로지룩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헤어 스타일, 힙합레게의 유행으로 아프리카 흑인들의 아프로 헤어 스타일, 오리엔탈룩으로 인한 동양적인 생머리 스타일, 과잉장식을 배제한 단순한 스타일, 헤어 디자이너 비달 사순의 모발의 움직임을 최대로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스타일, 남녀성을 뚜렷이 구분하지 않고 개성을 연출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서구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20세기 복식사에서 함께 보듯 약 10년을 단위로 약 1960년대까지는 여성적이고 곡선적인 것과 짧고 직선적인 느낌이 거의 주기적으로 약간씩 변형되어 번갈아 유행되면서 뚜렷한 헤어의 경향을 구분지어 볼 수 있는 반면, 70년대 이후부터는 서서히 시작된 흐름으로 과거에 유행했던 경향을 새로운 시대를 지배하는 예술사조 등의 표현기법을 도입하여 다시 여러 각도에서 재조합, 재조명하는 다

양한 대중매체의 발달로 정보화 국제화된 세계속에서 민족의 모호성, 남녀 성의 모호성, 인종의 다양성 인정 등의 다원화된 양상이 90년대에는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20세기 전반기에는 대체적으로 귀족층, 부유한 계층, 사회지도자 계층 등의 상위계층이 유행을 선도한 반면, 20세기 후반기에 접어들어 서는 젊은 계층, 하위 계층이 유행을 이끌어 가는 양상으로 신분계급간의 격차 등이 많이 줄어 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헤어스타일은 복식의 일부분으로 그 당시 그 사회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반영하는 작지만 중요한 한 문화로서 의복과 같이 대인간의 인상형성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인 이성, 감성 등의 총체적인 면을 표현하는 미적인 수단임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단순한 미를 추구하고 표출하는 수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만족감, 정신적인 풍족함을 얻을 수 있는 형태와 색채, 질감 등 시각을 포함한 다양한 감각에 호소하는 조형예술인 것이다. 특히 헤어스타일은 신체를 바탕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의복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조화된 토탈 코디네이션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으로 실과 바늘과 같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오늘날까지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발전되어갈 것이며, 대중매체의 발달과 정보화로 지구촌 시대가 된 지금 실용예술에서 실용학문으로서 더 넓은 학문적 영역을 넓혀가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헤어를 비롯한 미용분야에 관한 보다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후속 연구들이 학문적 차원에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단 행 본

강경화, 현대 메이크업 총론, APC, 2000

김영자, 분장의 이해, 서울 : 열두출판사, 1995

김춘득,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2000

김희숙, 한국과 서양의 화장문화사, 청구문화사, 2000

김희숙·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서울 : 수문사, 1996

메이크업 Ⅱ, 김경순 외 3인, 청구문화사, 2000

박길순, 재미있는 패션의 세계, 충남대 출판부, 2000

박옥련, 패션과 생활, 형설 출판사, 1999

백영자·조성교, 인간과 복식문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9

유송옥, 복식의장학, 수학사, 1997

유송옥·이은영·황선진, 복식문화사, 교문사, 1996

유효순·최해율, 복식문화사, 신광출판사, 2000

이선재, 의상학의 이해, 학문사, 1998

이세룡, CINEMA EROS 「영화 100년」 스크린속의 비너스들,
가교, 1996

이은영, 복식의장학, 교문사, 1993

임원자·백영자, 서양복식,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1997

전선정·안현경·이귀영·문윤경,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2001

정상호, 현대 패션모드, 교문사, 1996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수문사, 2000

조규화, 50년대 여성 패션의 회고 : New Elegance, 서울 : 반도패션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 경춘사, 1995
조오순·박혜원, 복식과 문화, 창원대 출판부, 1999
패션 큰 사전 편찬위원회, 패션 큰 사전, 교문사, 1999
허갑섬, 복식문화와 복장사, 도서출판 이즘, 1998
현대인과 패션교재 출판위원회, 현대인과 패션, 경북대 출판부, 1998
현대패션 100년 편찬위원회, 패션 1900~2000(현대패션 100년), 교문사, 2002
베비스 힐리어 저, 조규화 역, 20세기 양식, 수학사,
David Bond저, 정현숙 역, 20세기패션, 경춘사, 2000
에리카 틸 저, 양숙희 역, 복식과 예술, 교학연구사, 1997
James Lever 저, 이경희 편저, 복식과 패션, 경춘사, 1988

논 문

김경득, 서양 현대 연기자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수진,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김윤주,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특성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김은영,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적 특성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현미, 현대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특성에 관한 논문,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희숙, 20세기 서구 여성 헤어 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희숙,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화장문화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나채희, New Wave 패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박윤심, 1950년대 영화의상과 메이크업의 분석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서유리, American Hippie와 그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안현경, 20세기 서구 여성의 머리형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양은록, 97년이후 헤어 스타일에 나타난 키치적 요소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양진희, 현대메이크업에 난타난 레트로 경향(1990년대에 나타난 50,60
년대 스타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오인영, 사회문화적 배경이 20세기 전반기 서구 미용문화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이나경, 현대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선주,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채의 효과와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은임, 화장문화의 전개와 화장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청자, 히피 패션에 나타난 히피 헤어스타일 분석
(2002 S/S 패션컬렉션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이현주, 화장으로 읽는 여성문화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장미숙,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조미영,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조은별,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최은지, 아방가르드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한미경, 1990년대의 히피패션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국 외 문 헌

A. H. Powitt, 「Hair Structure & Chemistry Simplified」,
New York : Milady, 1977
Analee Gold, 「75 Years of Fashion」,
New York : Fairchild Publication, 1975
Charlotte Calasibetta, 「Fairchild' 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 Fairchild Publication, 1985

David Bond, 「Glamour in Fashion」, Guiness Publishing, 1992
New York : Greenwich House, 1979
Doreen Yarwood. 「European Costume 4000 Years of Fashion」,
London, Sidney : Batsford, 1975
François Baudot, 「Fashion The Twentieth-Century」
Rizzoli : New York, 1999
Hector Obaik, 「Les Mouvement de Mode」,
Paris : Robert Raffant, 1984
Irene Corey, 「The Face is a Canvas」, New Orleans :
Anchorage Press Inc., 1990
Kate de Castelbajac, 「The Face of The Century」,
Rizzol : New York, 1994
Kevin Aucoin, 「MAKING FACES」, New York, 1998
Michael and Ariane Batterberry, 「Fashion」,
London Colombus Books, 1982
Nathalie Chahine, 「100ANS DE BEAUTE」,
Editions Atlas S .A., Paris, 1996
Richard Corson, 「Fashion in Make-Up」
Robin Tolmach Lakoff & Raquel L. Scherr, 「Face & Value - The
Politics of Beauty」, Rouhedge & Kegan Paul, 1984
Robert Schmutzler, trans., Edward Roditi, 「Art Nouveau」,
New York : Abrams, 1962
Shu Uemura, 「Mode Make-Up Collection」,
Shu Uemura Artist Team, 1996

Turner Wilcox, 「The Dictionary of Costume」,
London : Batsford Ltd., 1979
Valerie Steel, 「Fifty Years of Fashi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Vidal Sassoon, 「Cutting The Vidal Sassoon Way」,
Neinemann Professional Publishing, 1978
Women of Fashion, 「The Twentieth-Century Designers」,
Rizzoli : New York,

「This Fabulous Century ; 1960 -1970」, Time-Life Books,
青木英夫, 「西洋化粧文化史, 東京 : 源流社, 1979

기 타

조규화, 디자인천재들의 작품을 통해 본 현대패션 100년사,
그 발전의 비밀. 「멋」, 1990년 5월호
Harper' s BAZAAR 1999년 1월호 ~ 10월호
Farbe 3월호 (Fashion in History) ,스포츠 서울 21
Votre Beaute (Korea판) 1997년 3월호& 5월호
http://www.costumegallery.com

ABSTRACT

A Study on Western Women's Hair Style and Costume in the 20th Century

Chong, Im Sook
Major in Make-Up Arts
Dept. of Fashion Arts & Design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Hansung University

Dresses and their ornaments may be visual symbol of values and thoughts, representing the times. Such dresses and ornaments reflect social culture of the times including not only the clothes surrounding our body, jewelry or other materials but also ornamental elements such as hair ornaments, cosmetics and tattoo etc.

Recently, however,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hair, which may be more easily changed or enables you to perform various personalities. A branch of Hairdo consolidates its position as a field of more detailed practical learning in the culture of dresses and ornaments. It used to be a tiny element of clothes-related departments before. In 1991, however, cosmetics-related department began to be installed in junior colleges. As of 2002, there are available curriculum

of coordinating overall dresses and ornaments centering on Hair and Make-Up in some 70 colleges. There have been a little thesis on Make-Up related to dresses and ornaments, but theses on hair have been written partially on the contrary to its significance. This study probes how the background of the social culture and the artistic trend of the 20th Century, which may be defined as the modern times, have been reflected in the dresses and ornaments and how air field has been chang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se the result as basic materials to create hair styles within a limit of new fashion and further make even a little contribution to the cosmetic industry and education.

The method of study includes literatures such as the Western costume history and related books, artistic history-related books, film-related books, fashion magazines and monthly magazines, Hair and Make-Up books, beauty-related pictures etc. To help understand, pictures are attached. The scope of study is Western women' s Hair Style, dresses and ornaments between 1900 and 1999.

Generalizing the result of the study, Hair style is part of dresses and ornaments, which reflect the social flow of the times.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fact that they are important in image making of a human being just like clothes but also aesthetic means to express overall respects such as reason and emotion of the human being. They are not limited to simple pursuit and/or expression of beauty but they belong to plastic art which appeal to various senses such as

shapes, colors and qualitative feeling which may give mental satisfaction and richness.

As shown in the 20th Century dresses and ornaments history, hair styles of Western women have changed about every 10 years. Until the 1960' s, there were alternating fashions of two; one is womanly and curve, and the other is young and straight with express distinction. Since the 1970' s, however, there had been the trends of racial ambiguity, sexual ambiguity etc. in the world by adding new age-dominating artistic trend to the past trends, helped by developed mass media. They culminated in the 1990' s.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upper class led fashion while young class and lower class led the fashion in the 2nd half of the 20th Century, with disparity among classes reduced a lot.

Particularly, hair style is important part composing of total coordination generally harmonized with clothes in that it is expressed based on the body. Even more positive studies are required to consolidate the scholastic basis as practical learning in this global age of developed mass media and information.